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OCT 2 1981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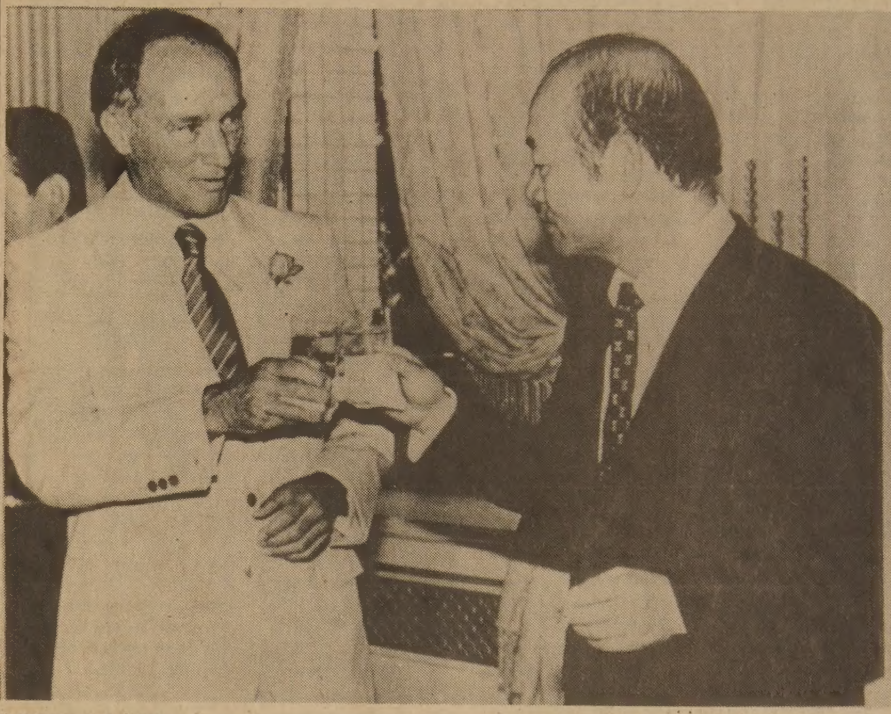
한국일보 토론토

(일간) No. 631 1981년9월29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September 29, 1981

트루도·전대통령 회담

캔두등 무역문제 집중토의

한국측 캐나다의 보호무역정책 비난



◇트루도수상과 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에 앞서 양국의 우의를 다짐하는 축배를 들고 있다[CP전송=본사특약].

(서울 = 이태은 본보특파원)

방한 2일째를 맞은 캐나다 트루도수상은 28일 청와대를 방문, 전두환 대통령과 한·가 정상회담을 가졌다.

63년 양국 외교수립이래 최초로 가진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루도수상과 전대통령은 주로 양국의 교역량증가등 경제문제에 관해 상호 관심사를 나누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트루도수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중앙청에서 남덕우 총리와 1차회담을 가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루도수상은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남한측을 지지할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치도자들에게 캔두원자로 추가도입등 캐나다와의 수입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이미 75년에 캐나다산 원자로캔두1대를주문, 현재 경북 월성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중이다.

캐나다측은 원자로 외에 밀, 통신시설등의 수출에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측은 트루도수상에게 섬유류 수입제한정책의 완화와 한·가합작 전자제품 수출회사 건설등을 요구했다.

한편 26일 본 특파원등 트루도수상의 수행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경제문제 보좌관 김기완박사는 "한국은 캐나다의 무역정책에 매우 실망했다. 캐나다는 한국수출품의 52% 이상에 수입제한정책을 쓰고 있다. 한국의 무역거래국중 어느 나라도 이렇게 심한 차별정책을 쓰는 나라는 없다"고 캐나다를 정중하게 비난했다.

현재 확장일로에 있는 한국원자로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세계7개회사가 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캔두원자로의 증설은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은 이미 7개의 원자로를 갖고 있다.

트루도수상은 26일 도착 직후 신라호텔에서 16명의 주한 캐나다 사업가들과 만나 앞으로의 정상회담대책 등을 비밀협의했다.

회담에 참석한 캐나다원자력회사 제임스·도넬리 사장은 "트루도수상의 방한은 정말로 의의가 깊은 일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경쟁이 심한 이 원자력산업에 캐나다가 참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로 2대를 추가 판매하기를 바라고 있다.

명랑한 기분의 트루도수상은 기자들에게 "캐나다 실업인들은 내가 해외 나들이를 좀 더 많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내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데 나는 통치해야할 국가가 따로 있단 말씀이야"라고 말했다.

트루도수상은 29일 부산의 UN군 묘지와 경북 월성군의 캔두원자로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호주 멜보른으로 떠난다. 이 원자로는 내년에 준공된다. 멜보른에서 트루도수상은 영연방수상회의에 참석한후 태평양 상의「피지」를 거쳐 귀국한다.

해외민원 미국이 으뜸

캐나다 8건 2위

〈서울본사전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민원이 예상외로 많고 그양상도 다양하며 심각한 것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본부가 마련한 해외민원창구에는 개설4일만에 크고 작은 1백여건의 해외민원이 접수되었다.

치안본부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사력이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시원한 답변을 해줄수 없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 그런 경우라도 해당외국에서 취할 적법절차를 가르쳐 주는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소재확인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32건, 기타 8건등 모두 96건이었는데 민원대상국은 미국이 54건,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8건, 기타가 24건이었다.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법원 459라는 이법안은 대부분 여성이 종사하는 주정부서비스직종에서도 일의 중요성에 기준을 두어 봉급을 책정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지역의 직업여성중 80퍼센트가 전체직종의 25퍼센트에 못미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여성의 평균수입도 남성평균수입의 59퍼센트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려졌다.

일부 책임 그자신에 있어

뉴욕타임즈, 김대중씨 곤경분석

윤보선씨등 야당인사들과 회견

복역중인 반체제 지도자 김대중씨가 그의 지지자들에게는 한국 군사통치자들의 사법적 조작에 의한 희생자로 가정되고 있으나 일부 인사들은 그의 곤경의 책임의 일부가 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는 일요일인 13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윤보선 전대통령은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대중씨는 작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기위해 조급하게 서둔 나머지 중대한 정치전략상과오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그가 작년초 신민당으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려고 결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윤씨의 견해에 의하면 김대중씨의 이같은 성급한 결정은 한국내 민주세력의 분열을 가져왔고 결국 작년5월의 군부집권을 가능케 했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과거 신민당 김영삼씨의 추종자였던 박권흠씨등 벗들의 인터뷰에서 김대중씨와 신민당 분열행위를 비난하면서 김씨는 정치적 자살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또 김영삼씨도 그의 자택서 가진 인터뷰에서 나와 김대중씨는 만일 우리가 분열하면 군이 개입한다는데 항상 견해를 같이했었다. 현재로서는 김대중씨가 왜 그같은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김씨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신문은 김대중씨는 현재 청주교도소에 수감중인데 부인 이희호씨가 1주일에 두번씩 교도소를 찾아가지만 한달에 1회 30분만 남편과 면회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동북아」중요 김일성은 위험인물

(워싱턴24일=연합)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기술이 앞선 국가들중의 2나라이며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극동지역에 대한 협력을 철회하지않을 것이라고 미국무성 고위당국자가 24일(목) 말했다.

이 관리는 만약 미국이 극동지역에 대한 협력을 포기하면 세계경제와 기술균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대부분의 군사병력과 원조를 상대적으로위협이 적은 유럽과 동북아시아보다 중요에너지 공급지인 중동에 집중투입하는 경향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미국의 중요목표는 자국과 함께 우방국들을 강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확언했다.

지난번 북한의 미 정보기 SR-71의 공격에 대해서 이 관리는 김일성은 북한의 계속적인 침략위협으로 미국이 남한에 대한 협력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포석으로 이러한 공격는 자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일성은 서구 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예측불허의 인간이라고 덧붙였다.

美·亞경제회의 개최

美 亞연구소·국무성 10月2日 워싱턴서 미국의 對아시아 貿易및 투자전망討論

미·아시아연구소는 국무성과 공동으로 미·아시아 경제회의를 오는 10월2일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이번 경제회의는 미국과 아시아 경제관계, 정책과 전망등에 대해 레건행정부 관리및 한국무역대표등 미-아시아연구소 대표들과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 회의에는 재무성, 상무성, 수출입은행 대표들이 참가 최근 미행정부의 무역정책과 미국의 아시아무역과 투자에 대한 전망이 토론된다.

2일과 3일 이틀동안 계속될 이번 회의에서는 존·홀드리지 국무성차관보 마이어·래쉬시국무차관이 참석, 미국의 대아시아 수출입, 수출재정, 투자에 관한 보고가 있다.

또한 이밖에 라이오넬올머 상무성차관, 존·더프수출입은행 부은행장, 프랭크·빅매니 미재무성해외투자국장등이 참석한다.

노태우장관 겸임 國家安保회의 위원

(서울=연합) 노태우 정무제2장관이 국가안보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25일 말했다.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 외무, 내무, 재무, 국방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이 위원으로 돼 있다.

新生國「벨리즈」가입 유엔 1백56번째

UN 과테말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신생국 벨리즈는 25일 UN총회에서 1백44대1의 압도적인 표차로 1백56번째 유엔가입국이 됐다.

벨리즈는 인구 15만의 소국가로 지난 20일 자정 1백19년만에 영국의 통치에서 독립했다.

◇28일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한 트루도수상이 남덕우총리 안내로 퇴장하고 있다. 뒷건물은 광화문의 뒷모습[CP 전송=본사특약].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신앙대부흥회

초청의 말씀

친애하는 교포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보지 못한 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지금 한창입니다. 우리의 정신생활도 이 계절과 함께 더욱 무르익어야겠읍니다.

금번 우리 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성경말씀을 중심으로한 대 부흥회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모시고저 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조병서 목사님은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과 역사학 두 분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영감에 넘치는 목사이십니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중앙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유성이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있는 사계의 많은 학자들은 지구가 1980년대를 안전히 넘길지 염려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엄청납니다. 이런 위급한 시기에 우리가 마련한 이 부흥회 자리에 오셔서 불안에 가득찬 미래를 위한 희망과 확신과 지혜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 박 형 종
수석장로 : 노 봉 우 드림

강사 : 조병서 목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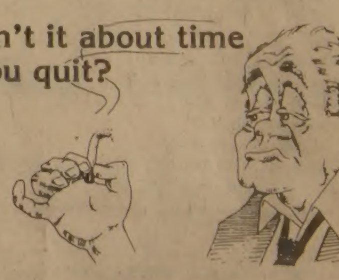
기 간 : 1981년10월16일~25일 (매일밤7시30분)
장 소 : NORTHMINSTER연합교회당 255 FINCH AVE. W. WILLOWDALE (Bathurst St.의 동편)
전 화 : 630-4284
강 사 : 조병서 목사(미국과 한국에서 신학과 역사학 두 분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영감의 목사님)
현 재 : L.A. 중앙교회 담임
※매일 밤 천연색 건강 영화가 상영됩니다.

총연제 : 사 랑 의 하나님

10월16일(금) 역사속의 하나님
10월17일(토)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것이 옳은가
10월18일(일) 노아 홍수의 멸망과 오늘
10월19일(월) 이스라엘과 출애굽 그리고 우리
10월20일(화) 이스라엘과 아랍의 투쟁
10월21일(수) 유대의 멸망과 바벨론
10월23일(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우물
10월24일(토) 내가 원하는 사랑
10월25일(일) 행복한 가정

5일 금연학교

Isn't it about time you quit?



SMOKERS!
Enjoy Life More!
Enjoy Life Longer!

기 간 : 1981년10월10일~14일 매일밤 7시30분
장 소 : NORTHMINSTER연합교회당 255 Finch Ave. W. Willowdale

BATHURST STREET
YONGE STREET
FINCH AVE. W
255 FINCH AVE. W

토론토한인 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 교회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IPU참석 한국의원단

카스트로수상과 면담

정부대표차원서 쿠바와 첫 접촉

쿠바 하바나의 IPU(국제의원연맹)회의에 참가했던 채문식한국측단장등 의원단 25명이 카스트로 쿠바수상과 면담, 양국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눈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대표단일행은 25일 낮 LA에 도착했다. 공산국가 쿠바에 한국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발을 디딘 채문식단장(민정·국회부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1백여 참가국에 한국의 통일의지와 방법을 자신있게 펼쳤다』면서 『전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초월 일치단결해 우리의 이같은 뜻을 널리 이해시켜한국측견해에 상반된 논의등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효과였다』고 동료의원들에 공을 돌렸다.

채의원은 쿠바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폐쇄적인 곳이 아니었다고 방문소감을 밝히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접대도 매우 친절했다고 말했다.

공항에 도착했을때 쿠바의원들의 영접에서부터 호텔에 묵는 동안 관광안내까지 쿠바는 회의 주최국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고 말한 채의원은 쿠바체재동안 카스트로 수상을 만난것이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각국대표단장을 개별적으로 초청해 벌인 리셉션에 두번이나 참가, 한국측 정치인으로서는 처음 카스트로와.의례적인 것이나마 면담을 가진 채단장은『카스트로는 듣고 본대로 건장하고 말잘하고 항상 군복을 입고 다니더라』고 카스트로에 대한 인상을 들려줬다.

쿠바가 북한처럼 철저한 폐쇄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쿠바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는 채의원의 얘기.

녹음기까지 가져와 인터뷰를 한 이 기자는『대한민국 사람을 인터뷰하기는 처음이다』면서 『한국은 쿠바를 북한과 같은 나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더라는것.

이기자는 『북한의원들이 김일성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이 이상하게만 보인다』면서 『우리는 카스트로수상을 가슴에 다는게 아니라 가슴속에 품고 다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스트로는 참가한 우리측 의원에게 일일이 선물상자를 하나씩 전하기도.

채의원등 대표단일행 대부분은 27일 귀국했다.

▲쿠바 IPU회의에 참석후 24일 하오 멕시카나 항공편으로 LA공항에 도착한 채문식단장(왼쪽)및 의원들이 박민수총영사(오른쪽)영접을 받고있다.

살균우유로 가격하락

영양가 차이없고 냉장불필요

온타리오 소매업자들은 만약 주정부가 지금 실시되고있는 시장정책중의 하나만 완화한다면 우유값을 현재보다 11%나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캐나다소매상협회」는냉장고가 필요없고 6개월 동안 변질되지 않는 살균우유 판매를 촉진하려고 시도하고있으나 온타리오 주내 우유분배를 책임지고있는 「온타리오우유공급협회」가 저장과 판매(도매)권을 우유제조회사 외에는 주지 않는다는 방침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79년 6월의 우유협회협정하에서는 수퍼마켓.이나 소매상주인들이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는 우유를 판매목적으로 사거나 저장못하게 규정되었다.

온타리오에서 유일한 살균우유를 제조하는 브람톤소재 에플렛 우유제조회사(Eplett Dairies Ltd.)는 생산품분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우유제조회사에 대리판매위탁을 하고있다.

살균우유는 우유 온도를 섭씨141도(미생물이 완전 제거되는 온도)까지 올려 우유변질의 원인인 박테리아를 완전히 죽여버린 우유다.

한편 보통우유(생우유)는 섭씨100도까지 올려 만든 것으로 이 온도에서는 박테리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살균우유나 보통우유는 영양분이같다.

현재 1리터짜리 2% 우유는 82센트에 팔리고 살균우유는 81센트에 팔려 가격면에선 별차이가 없다.

「캐나다소매위원회」식품분과 부사장 팀·카터씨는 만약 현행분배시스템과 달리 도매상과 같은 웨어하우스 분배를 하게되면 현행 가격의 7~11%까지 내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런 시스템은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여 결국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는 아울러 말했다.

현재 살균우유는 1년에10억리터의 우유가 소비되는 온타리오 시장의 1%밖에 점유못하고 있다.

에플렛우유제조회사 모리스·코만사장은 살균우유는 「그로서리」로 취급되어 웨어하우스를 통하여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온타리오 우유위원회」 존·크라우터 위원장은 내달안으로 살균우유 판매촉진과 가격인하의 방향으로 정책이 변환되리라는데 낙관적이다.

모유 양육 권장

세계보건기구 결의

(서울26일=연합)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구위원회는 25일(금) 모유양육을 권장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일주일동안 계속될WHO 제32차 연례회는 24일(목) 서울에서 개막했다.

참가국들은"최근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모유양육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보건기구는 회원국들에게 가공유에 대한 광고및 판매규제를 촉구했다.

모유양육촉진 결의와 아울러 동위원회는 B.C.G. 백신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했다. 백신사용효과에 대한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 백신은 폐결핵예방에 큰효과를 보여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지역개발에 있어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적지원을 계속키로 결의했다.

— 바로잡음 —

지난 27일자 「교민동정」란에 실린 이영두씨(Lisbon Auto Body)의 개업자축연은 이씨측 사정으로 10월 7일 하오7시로 연기.

교 민 동 정

◆**김억일·이문호** (한인베타와이즈클럽 회원)=김씨는 캘가리로, 이씨는 미국으로 이주했다.

◆**강대길**(한인장로교회 장로)=9월13일 소속교회에서 장로로 위임되고, 이어 한인베타와이즈멘즈클럽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사무장에 임명됐다.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 쉽니다.

〈논 단〉

트루도 수상의 방한과 캐나다교포

캐나다 한인총연합회 회장 오 기 송

오기송 연합회장

9월27일 트루도 수상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일국의 수상이 타국을 방문하는데는 모름지기 거기에 따르는 친선관계와 굵직한 외교내용이 있는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의미에서 트루도수상의 한국방문은 한·가 관계에 중요한 계단을 쌓는 것으로 될 뿐 아니라, 동족으로서의 캐나다 교포의관심사도 되지 않을수 없다. 트루도수상의 방한을 계기로 관심사를 한두가지 피력하는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니리라.

(1)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것은 캐나다와 한국의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먼 역사는 그만두고라도 한국동란시 캐나다는 참전국16개국중 한나라로서 516명의 전사자와 1,255명의 부상자를 낸 나라이다.

그후 한·가 양국은 계속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현재 무역관계만 보더라도 작년도의 양국간의 교역량은 약 8억달러에 달했다.

근일 한·가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양국 정치인들의 교류관계이다. 상호간의 인적 교류는 양국간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발견케하며, 상호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트루도 수상은 한국방문에서 한국사람들의 열성, 근면, 인내, 전진하는 모습을 살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정치인들은 캐나다의 정치적 관용, 복지생활과 저소득층에 대한배려, 다민족 국가로서의 조화와 질서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상호 이러한점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역사를두고 협조와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첩경으로 될 것이다.

(2)캐나다는 면적으로 남한의 100배가 되는데 비하여 인구는 남한의 3분지2도 못된다. 이와같은 계산은 국제관계에서 관찰할때에 한나라는 땅이좁아서서설자리가 없을 형편인데, 다른 한나라는 땅이남아서유휴지가 사용하는 토지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루도 수상은 금번 한국방문에서 이러한 현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부자 나라로서 불경기나 실직률등의 단기적인이해관계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먼 장래의 인류의 공존공영이라는 원대한 이상과, 그간 외교관계에서 적용하여온 인도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기를 바란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79년도)1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인 외에 5만명의 동남아 피난민을 받아들였다.(1979~80년)트루도수상은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팽창인구에 큰 관심을 돌려 캐나다의 넓은땅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3)한국정부로서는 이 기회에 교역, 안보문제에 깃들여 이민문제에도 크게관심을 돌리기 바란다. 근일 한국정부가 이민에관해 적극정책을 취하고있는 사실은 한국형편에서 반가운소식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정부는 조직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민학교"같은것을 세우는대책을 마련하는것도 어떠할까? "이민학교"는수민(受民)국의 언어풍속은 물론, 수요직업 훈련까지 세우는 계획성이 있기를 바란다.

캐나다는 이민을 받는데 아직도 점수제도를 적용하여 언어능력, 받은교육, 마련된 직장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50점에 달할때에는 합격으로 인정한다. 즉 각국으로부터의 많은 신청자의 경쟁에의해 이민을 받는다는 말이다. 경쟁에 이기는길은 수요국의 필요에 응할수 있도록 준비하는길밖에 없다.

형편에 따라서는 이민수에 증감은 있을지언정 캐나다는 항상 이민의 나라로서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주의하기 바란다. 한국이 현조건에서 이민을 많이내어 보낸다는 것은 민족의 뿌리가 해외로 뻗친다는것을 의미한다. 많은 이민이 해외에서 깊은 뿌리를 박는다는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국익"과 일치될 것이다.

(4)캐나다 연방정부는 한국교포의 지위를 인정하고 매년 10월3일(개천절)을 "한국의 날"로 선포하였다.

캐나다의 복합문화정책이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준 "특권"이다. 이 "특권"을 특권답게 행사하고 못하는것은 우리에게 달린문제이다. 즉 복합문화성은 한국소수 민족에게도 복합문화의 정보에 입각하여베풀 좋은"몫"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할 "몫"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외에 아무도 탓 할 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에 공헌할줄도 알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국가에서 베푸는 혜택을 받는데도익숙해야 하겠다.

(5)우리교포는 다른민족에 비하여 소수중의 소수(1.7%)이다. 이 소수가어떻게 다수민족과 더불어이 땅에서 발판을 넓히고,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킬수 있을까? 매우 심중한 이야기이다.

사회적으로 소수가 강해지는법은"단결"이외에 다른길이 없다. 10년이 훨씬 지난 역사를 가진 우리교포도 이제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시야를 넓히고, 이 나라에서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단계라고 생각한다. 즉 우리들의 내향적인"갈등"을 지양하고, 외향적인 "단결"을강화할때라고 생각한다. 흩으러지는 모래가 되지말고, 뭉치는 시멘트가되어 이땅에 성공의 뿌리를 박자.

反政府 교내데모 모의 혐의

서울大生 5名체포

〈서울 〉경찰은 지난주 반정부시위를 모의한 혐의로 서울대생 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19일 교내서 반정부시위를 시도한 혐의인데 여학생도 포함된 학생들은 교내4층짜리 건물위에서 반정부유인물을 살포하고 학생들에게 시위에 참가하라고 독촉했다는것.

그러나 경찰은 다른 학생들이 이 시위참가 요구에 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창설13돌 행사

토론토한인천주교회

9월26일, "한국순교자의 날"(부자축일)이자 토론토한인천주교회(신부 고종옥) 창설 13돌 기념일을 맞아, 주일(27일) 미사때, 콜럼브스 한인천주교회 주임 왕영수 신부의 「순교정신과 신앙자세— 묵상」특별강연이 있었다. 테마는"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가 1장38절).

현 대 한 국 작 가 초 대 전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 1회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 영 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대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권 승 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선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삼인전

장 소: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 특설화랑
123 QUEEN ST. W.

시 간: 10월 8일(목); 9일(금): 6:00P.M. ~9:30P.M.
〃 10일(토), 11일(일): 2:00P.M. ~9:30P.M.
〃 12일(월), 13일(화): 6:00P.M. ~9:30P.M.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
(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노력만이 英語극복의 길

언어심리학 박창진博士의 도움말 ㊦

◇많은 교포들이 미국서 몇년을 살아도 말을 못해 고민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영어를 눈으로 공부하기 때문이다. 눈으로는 쉽게 무슨뜻인지 알고 있지만 말은 나오지 않는것이다. 말을 알고있지만 음을 결합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입이 열리지 않는다.

◇일반인이 기본적인 말을 익히기 위해 하루에 얼마가량 영어공부를 하는것이 필요한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30분에서 1시

짧은 會話體익혀서 배운것 되풀이하고 每日 거르지않고 工夫하는 습관길러야

간정도가 좋을 것이다.그대신 매일 쉬지않고 핑계를 붙이지 말고 계속해야한다. 이런습관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공부시간이 늘어나게 된다.영어에는 핑계가 있어서는 안된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가량 매일 영어를 공부할때 기본적인 회화능력을 갖기위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수가 없다.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태도,노력이 다르기 때문에 말할수가 없지만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지도를 받는다면 1년내에 상당한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할수 있다고 본다.지금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국 성인들이 영어를 배우는 과정은 미국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과 관련시켜서 가르쳐 보려고 하는것이다.

◇영어를 배우는데는 역시 재능이 따르지 않겠는가?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영어를 배우는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 말을 배우는데는 재능이란 상관이 없다. 청각기관, 발성기관, 중추신경에 지장이 없는한 누구나가 말을 배울수 있다. 늦게배우고 빨리 배우고에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많은 교포들이 말 때문에 심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수있는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시적으로는 타격을 받겠지만 이것을 극복하게 되면 자연적으로해결된다고 본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집에서 한국말만 쓰고 영어를 가르치지 않다가 갑자기 유치원을 보내 미국아이들과 부딪치게 할때 심한 충격을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하고 울면서 칭얼해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말이 안통하니까 학교에도 가지않으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언어를 습득하기때문에 적응하게 된다. 이때 학교에 가기 싫어 한다고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때리면 성격에 지장을 줄수가 있다.

◇흔히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말을 듣는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민자녀들이 사고할 언어가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을 일찍 떠나왔기 때문에 한국어로 사고할 능력이 없는데다가 영어능력도 사고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두가지가 있다. 사고가 언어를 지배한다는 주장과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양쪽다 결정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와 언어의 관계가 명백히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언어가 사고의 수단방법이 되는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사고를 하고있을때 일일이 한국말이나 영어로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민 자녀들이 깊이있는 책을 이해할수 없는 것은 사고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장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어릴때 이민온 아이들일 경우 성장하면서 한국말을 점차 상실해 가는데 대략 몇살정도면 이위험선에서 벗어난다고 볼수 있는가?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것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다. 쓰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그러나 똑같이 한국말을 안쓰고 영어만 쓰더라도 어른들은 말을 안잊어 버리는데 아이들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가?

□어른일 경우도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언어를 많이 상실한다.

◇어려서 미국에 오더라도 미국서 태어난 아이와는 금방 표가 나게 영어를 하는것이 보통이다. 액센트나 억양등이 태어난 아이와 다름없게 되려면 어느정도 나이면 되는가?

□이점에 관해서는 각 나라에 따라 연구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유리하다. 그러나 열몇살때 오더라도 자신이 특별히 노력을 하면 극복할수가 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에 따라 억양이 두드러지게 표가 나는것을 볼수 있다. 중국인 2세나 일본인 2세들에게 가끔씩 느끼는 현상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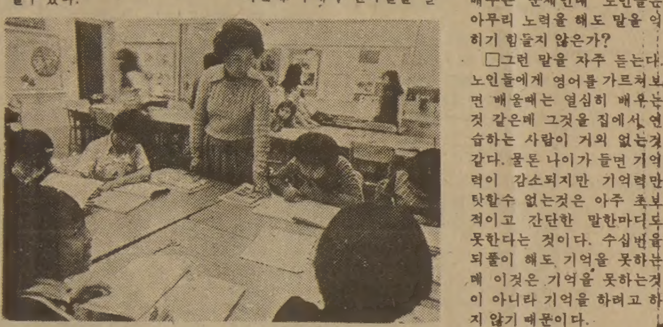
□그런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어를 빨리 배우게 한다고 한국말 티가 있는 영어를 쓰는데 아이들은 이것을 영어라고 배우게 된다. 차라리 집에서 부모들은 한국말을 쓰는게 낫다. 부모들이 서투른 한국식 영어를 쓰게되면 자녀들의 억양이나 액센트가 영향을 받는다.

자녀들이 커서 영어능력을 어느정도 발달시킨 뒤에는 의사소통을 위해 부모가 영어를 사용해도 괜찮다.

아이들과 對話는 한국말로, 學習강요는 말라 世代間의 갈등은 言語가 아닌 다른要因에서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말만 쓸 경우 미국아이들과 경쟁에서 영어능력이 뒤질 우려는 없는가?

□전혀없다. 미국친구들과 어울리고 TV, 책등을 통해 충분한 언어 경쟁력을 습득할수 있다.



◇이중언어 교사의 지도를 받는 교포어린이들—집에서 한국말만 쓰던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곧 영어를 습득하게 된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어릴때 한국말과 영어를 동시에 배울때 언어습득에 지장이 없는가?

□아이들때는 몇가지 말을 충분히 배울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경우 기본적인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나라 말을 완벽한 수준으로 구사할수 있는가?

□물론이다. 영어에서 한국말, 한국말에서 영어로 옮겨오는 것이 자유자재로 될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말을 제대로 하는 2세 자녀가 드물지 않는가?

□그것은 가르치는 방법이 나빴다든가 혹은 두나라 말을 동시에 배울수 있는 여건

서투른 英語쓰면 子女의 억양·액센트에 영향 母國語도 안쓰면 나이에 相關없이「상실 현상」

이 성립돼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수 있을것이다.

◇2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한 조언을해달라.

□우선 가정에서 언제나 한국말을 쓰도록 한다. 다섯 여섯살때까지는 집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이 애로가 없지만 미국 친구들과 어울리게 될때 자연히 언어가 한국말에서 영어로 옮겨간다. 이때부터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나 이때 본인이 싫어하는데도 부모가 억지로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강습소 같은 곳에 보내는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시킬수 있다. 자녀들에게 갈등을 느끼게 하면서 강제로 한국말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한국말을 강제로 가르치려고 하면 영어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말은 본인의 의욕이 없이는 배우기가 힘들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2세들 경우 어느정도 나이가 들면 한국말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심리적으로 한국말에 저항감을 느끼는 시기가 있는가?

□특별히 그런것은 없다. 오히려 부모의 언어태도가 그런태도를 물들어 준것이 아닐까 한다. 부모들이 자기들도 영어를 할줄 안다고 영어로 하게되면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영어가 통하는데 구태여 한국말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된다. 부모중에 아버지는 처음부터 영어를 쓰고 어머니는 한국말을 써왔을 경우 커가면서도 아버지에게는 계속 영어로 하고 어머니에게는 한국말은 하는것이 보통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문제가 관심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자녀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반면 부모들의 영어능력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대화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말을 듣는데….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세계관, 가치관, 태도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지 영어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영어를 배우는 자녀의 적응과정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집에서 한국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한국어를 습득하기에 불충분 하지 않은가?

□물론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과 대화는 한국말로 하되 본인이 싫어할 경우 강제로 한글학교나 교회같은데서 한국말을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집에서 기본적인 것을 익혔을 경우 나중에 책을 통해서 어휘수를 늘이고 구사력을 확대할수 있을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어가 뒤질까봐 카세트영어 녹음을 들려주는등 영어교육에 애를 쓰는것을 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어린아이들에게 구태여 그런 것을 할필요가 없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때 단순히 소리를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보적이지만 판단력이 동원된다. 자동차를 보고 부모들이 자꾸 자동차라고 그러니까 아마 저것을 자동차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판단력을 얻게되어 자동차란 말을 배운다. 카세트 녹음을 틀어줄때 소리는 흉내낼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의미를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

책을 읽고 영어가 어느정도 발달한후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내 경험으로 보니 3살정도 되니까 아이들 차이가 나오는것 같다.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3살정도에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도 있었다.

◇끝으로 노인들이 영어를 배우는 문제인데 노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말을 익히기 힘들지 않은가?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 노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보면 배울때는 열심히 배우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집에서 연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것 같다. 물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소되지만 기억력만 탓할수 없는것은 아주 초보적이고 간단한 말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이다. 수십번을 되풀이 해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것은 기억을 못하는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사람 들을 아파트에서 만나도「굿모닝」이나「하우 아 유」를 하지않는다고 한다.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르는데 구태여 창피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말할수 있는 기회를 찾는것을 그만두고라도 온것까지 마다하는 태도이다. 배울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노인들이 마음을 단단이 먹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때 최소한 어느정도의 어휘나 기본문장을 익히면 되겠는가?

□딱집어서 얘기할수 없지만 내주장은 단어를 외우려는 생각보다는 짧은 문장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노인들 경우 일상생활에 쓰려는것이 아니고 긴급시에 쓰기 위한 것이라면 단어는 5백개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노인들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정도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거의 없는것 같다. 노인들 경우도 아들을 따라 가게에 나간다든지 해서 몇마디라고 꼭 해야될 형편일 때는 필요한말을 하는것을 보게된다. 말로는 영어를 몰라 불편하다고 하지만 영어를 배우려고 애쓰는 노인은 거의 볼수가 없다.

◇영어를 공부하려는 노인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하루에 단 얼마라도 배운것을 되풀이하는 노력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을 꼭 배워야겠다는 의욕을 가졌으면 한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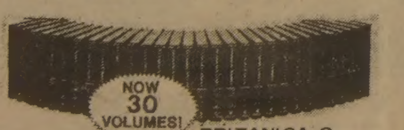
광고문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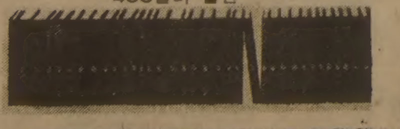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용목배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호섭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202 SPADINA AVE.
MRS. PARK
☎ : 363－6077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풀타임 카운터 헬퍼구함
EATON CENTER내
☎ : 979-9283

그로서리 가게 :
파타임 일할분 구합니다.
☎ : 425-2905(돈밀×에그린톤 지역)

MICHI(미찌) 일본식당
요리사 또는 부엌일 하실분 급구 합니다.
CALL : 매니저 · 924-7501
주소 : 459 CHURCH STREET

입주하셔서 애기와 살림해 주실분
구합니다.
☎ : 244-7303, 663-1053

공장에서 일하실 경험 있는 분 구함 :
전기 어셈블리, 전기 텍크니션, 플라스틱 몰딩기계
어프레이터 직접와서 문의 바람.
DORCHESTER ELECTRONIC
40 FINA CRES. (Corner & Browns Line)

웨이터1명, 웨이트레스1명

626, 628 BLOOR ST. W

경험있는 풀타임 헬퍼 구합니다 :
미시사가 지역
☎ : 822-4895(B), 823-2445(R)

도나스 가게 풀타임 또는 파타임
헬퍼 구함
☎ : 881-2019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 368-2819 미스타 윙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
월~금(아침9시~6시30분 저녁)
스타트 페이 $6.50
3개월 후부터 $7.
드라이빙 면허가 있어야 함.
연락처 : 624-0511(아침 9시~저녁6시30분 연락바람)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77-1110

주말 파타임 헬퍼구함 :
마캄과 로렌스
☎ : 438-1528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 두채의 아파트 매매 : 좋은수입과
두개의 휴식처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기회
☎ : 763-6287

FISH & CHIP매매
적은 자본으로 사업체를 찾고 계신분에게 적격, 모든
경비공제후 연 순수익 30,000달러이상, 주49시간 영업
일주에 필요한 인원은 1½사람, 관심있는 분은
연락바람.
☎ : 633-6281 2865 JANE ST.

FOR SALE
TRIPLEX집 : PRIVATE SALE(로얄욕×레이크·서)
교통 아주편리(서브웨이), 액설런트 콘디숀(Hot water
heating by gas), 방11개, Moving out of city.좋은 모게지
가능. MR. ORVAL HANNA
☎ : 247-7161(B), 259-9913(R)

성업중인 햄버거 샾 팝니다
☎ : 530-0748 DAVID

스토아 매매 :
건물달린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 1-387-3983 해밀톤 미스타 김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급 매
타사업 관계로 급히 매도코자 함. 관심있는 분의
직접 내방바람.
357 COXWELL AVE. TOR. ONT.

다운타운 멀안에 있는 FAST FOOD STORE임
연 순이익 $35000, 부부가 하기에 아주 이상적임
주6일 영업, Asking $33000중 모게지 $7500가능함
☎ : 536-0463

전화 후렌치 스토아 매매
당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전국에 걸쳐있는 전화 후렌치
스토아에 흥미가지신분 구함.
좋은 이익을 볼 수 있음. 투자액 35,000~60,000달러
(모든경비 포함) MR. MONK
☎ : 445-7974 1875 Leslie Ave. unit 18

빽커스토아 매매
오후 6시30분이후, 아침10~12시 연락바람
☎ : 439-3044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 535-2804 미세스 김

매 매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소 : 3325 BLOOR ST. W. 직접 내방요함.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
① 주매상 5500달러(프라자안에 있음)
② 주매상 3300달러(아파트 포함)
THE PERMANENT R. E.
☎ : 481-3443, 745-5483

몬트리올에 있는 가게 매매
성업중인 그로서리 점포및 건물
위 치 : 6951 SHERBROOKE W. MONTREAL
주 매 상 : 7,000달러 이상
건물올게지 : 13½%(85년 7월까지)
전 화 : (B) 481-8131, (R) 481-3893

BASKIN ROBBINS아이스크림 스토아를
매매코자 함.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방문및 전화는 매일 12시 이후에 하시기 바람)
360 GEORGE ST. NORTH PETERBOROUGH
☎ : 705-743-3152 MR. 유

코너 스토아(우체국포함)매매 :
아스킹 15,000+스탁(영×써머·힐)
1272 YONGE ST. MR. INGHAM

매 매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 좋은 이윤과 장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자함.
100 CAVELL AVE. MIMICO

집·방세·하숙

집세 놓습니다. 교통편리 : 던다스(영 & 처치)
1 &2 베드룸 With Patio deck, 즉시 입주가능,
냉장고, 스토브 설치되 있음. ☎ : 444-1322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악기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후(서울음대 졸)
☎ : 781-0200

꽃 집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솔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 집 크로스웨이(구 쿨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간 판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 (온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헌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 : 651-9324(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자동차, 유리, 실내장치 :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8-0656(B), 493-7185(R) 정 해 문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지 환

기 타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SOMÉ JEWELLERY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디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소메쎄라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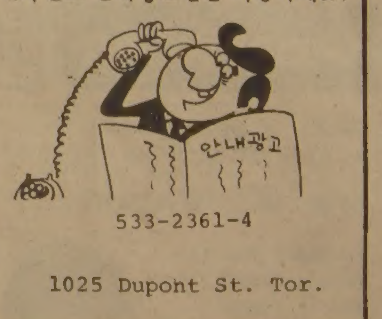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SINGER
●전화주문 받습니다. ●모든
종류 미싱수리,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사장님, 꿈을 믿으시나요?"
"왜?"
—"어젯밤 사장님이 제 봉급을 올려주려 하는 꿈을 꿨거던요"
"그래, 난 꿈을 믿지"
"야!"
"내가 믿지 않는건 봉급인상이야"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남자친구 3명 齒列본떠 감정
女大生 피살사건

속보=상경여대생 朴양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4일 朴양의 오른쪽 귀밑에서 발견된 이빨자국을 낸 사람을 찾기위해 朴양과 가까웠던 張모군(21·K大3년) 李모군(22·Y大4년) 梁모군(22·K大4년)등 3명의 치열을본떠 감정을의뢰했다. 한편 朴양이 張군과 사귀기전 가깝게지냈던 釜山모대학3년 鄭모군(21)은 수사결과 사건당일인 18, 19일의 알리바이가 성립돼 일단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또 張군이 당초 진술과는 달리 朴양을 사귀기전에 다른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전애인의관련여부를 조사중이다.

잠자던運轉士절명
목숨앗은 모기향

【釜山=聯合】 24일새벽 3시30분께 부산東萊區久瑞洞84 주차장에 세워둔 강원7아1202호 8톤트럭 운전석에서 모기향을 피워놓고 잠을자던 이트럭운전사 姜容求씨(22)가 신음중인것을 조수 朴승철씨(24)가 발견, 병원에 옮기던중 숨졌다. 朴씨에 따르면 姜씨는 23일밤 늦게 운전석의 백미러위에 모기향 1개를 피워놓고 잠을잤는데 이주차장 화물취급소에서 잠을잔후 차에가보니 운전석앞쪽 창문이 5㎝가량 열려있고 운전석은 모기향연기로 가득차있었다는것.

제1회「詩소리판」

문예동인회「詩人의 집」은 27일 하오3시 시립용산도서관강당에서 제1회 詩소리판을 갖는다. 문학강연「詩에 있어서의 詩語」(黃命), 「詩와 大衆」(金光協)등이 강의되고, 동인들의 자작시낭독이 마련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天然음료등 6品目에 特消税

政府、11개 품목은 税率조정

유흥飮食店·스키場도 追加

TV·냉장고등 5~20%引下

피아노·毛製品 10~20%올려

정부는 간접세 부담을 조정, 현재 29개 특별소비세대상품목 (대분류) 가운데 11개품목의 세율을 내리거나 올리고, 澱粉糖등6개품목과 유흥음식점 스키장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키로했다。이에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은 현 29개품목서 35개 품목으로, 과세대상 업소는 현재 터키탕 (세율1백%) 경마장(〃50%) 카지노 (頭當 국내인 1만5천원 외국인 1천원) 골프장 (〃3천원) 슬러트머신 (〃5백원) 등 5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

24일 재무부가 마련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TV음향기기 냉장고등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품목에 대한 세율은 기본세율을 5~20%포인트를 인하하고, 피아노 요트 毛製品등 사치성 품목은 10~20%포인트를 인상했다。

이에따라 흑백TV는 현행 기본세율 30%(탄력세율 21%)에서 10%, 음향기기는 30%에서 10%, 휴대용 소형녹음기는 10%, 기타녹음기 전축등은 25%로, 가구는 20%에서 15%로, 絨緞(化纖製)은 30%서 20%로 내렸다。컬러TV(18인치이하 소형) 냉장고(2백50ℓ이하 소형) 전기이용기기는 기본세율이 40%에서 30%로 내려지만 현재 오는연말까지 時限으로 적용되고 있는 탄력세율 28%보다는 2%포인트가 올랐다。

또 피아노는 그랜드형이 20%서 30%, 일반형이 10%서 20%로, 모터보트와 요트(大型)가 40%서 60%로, 絨緞(毛製品)이 30%서 40%로, 인삼 녹용 로얄제리 海狗腎등 滋養強壯品(錠劑 固型 煉狀 분말제품)이 10%서 20%로 올랐다。

또 지금까지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니었던 澱粉糖(果糖 포도당)、천연과실음료가 각10%、카카오마스 크리스탈유리제품이 20%、가스이용器具(大型) 30%、雪上스키용품 수상스쿠터가 40%씩 과세대상품목이 되었고 나이트클럽 카바레 요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스키장의 요금에도 신규로 10%씩의 특별소비세를 과세키로했다。

그러나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고있지만 기본세율이 소형 15%중형 20%인 승용차 기본세율 1백60%와 10%인 휘발유와 경유의세율은 이번에 손질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대로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특별소비세법이 개정시되면 천연과실음료、유흥음식점등과 같이 신규과세되는 품목이나 業所의 가격과 요금은 인상될 전망이고 세율이 내린품목도 家電제품보다 30%낮은 下限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아왔기때문에 黑白TV를 제외하고는 가격인상요인이 생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기술개발을 先導하는 품목으로 수출전략상 內需기반확대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세율제도를 신설, 4년간에걸쳐 첫2년간은 기본세율의10%, 다음1년간은 기본세율의40%, 나머지1년간은 기본세율의 70%를 적용할수있도록하고 內需보급률이 상당수준에 이를경우 적용기간만료이전이라도 잠정세율적용을 중지할수있도록했다。

지금까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29개품목은 보석, 귀금속, 오락용품, 에어컨, 세탁기, 승용차, 시계, 사진기, 코피, 설탕, 사이다, 빙과류, 발효유 (야쿠르트) 자양강장품, 휘발유, 경유, 모직물등이다。

◇과세대상과 기본세율 개정내용

▲ (세율인하품목)

품목	현행	개정
黑白TV	30(21)%	10%
컬러TV (小型18" 이하) 音響器機	40 (28)	30
소형녹음기 (휴대용)	} 30	10
기타녹음기, 전축등		25
냉장고 (소형 250ℓ 이하)	40 (28)	30
전기·전열利用器具	40 (28)	30
家具	20	15
絨緞 (化纖제품)	30	20

▲税率引上品目

품목	현행	개정
피아노 { 그랜드型	20%	30%
一般型	10	20
모터보트와요트 (大型의것)	40	60
絨緞 (毛製品)	30	40
滋養強壯品 (錠劑, 固型, 煉狀, 粉末의 것)	10	20

▲신규과세품목및業所

품목	현행	개정
澱粉糖 (果糖포도당)	—	10%
천연과실음료	—	10
카카오마스	—	20
크리스틀유리제품	—	20
가스이용기구 (大型)	—	30
스키用品, 水上스쿠터	—	40
유흥음식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요정,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	10
스키장	—	10

※괄호안은 탄력세율

美蘇、軍縮회담再開 합의

어제 外相회담 共同聲明 발표

核미사일·波事態등 논의

28일 2次會談개최

【유엔本部23日UPI·AP聯合】 헤이그 美국무장관과 소련의 그로미코는 24일새벽3시(한국시간)부터 4시간21분동안 유엔본부의 美대표부에서 외상회담을갖고 유럽배치중거리핵미사일제한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협상을 개시할것에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두나라 외상들은 그러나 기타문제에관해서는 커다란 견해차를 드러낸것으로 전해졌다。

딘·피셔국무성대변인은 새 군축회담재개에 관한 양국간 공동성명이 이날 하오9시 (한국시간) 뉴욕과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군축회담의 일정과 개최장소가 이날 발표될 공동성명에 담겨질것으로 보인다。

피셔대변인은 이번 美蘇외상회담이『솔직하고도 실무적인 회담이었으며 폭넓은국제적 관심사를 다루었다』고 설명했다。

헤이그 장관은 회담예정시간보다 이날 새벽3시(한국시간)보다 15분빨리 회담장소에 도착했으며 그로미코는 이보다 20분 늦은 3시5분께 도착했는데 美대표부 건물주변의 경계태세는 삼엄했다。

두나라 외상은 이날 회담에서 유럽 배치중거리核미사일 제한협상의 재개일자 및 장소문제등에 관해타결을 모색했으며 그밖에도 폴란드 위기와 아프가니스탄사태등 광범위한 국제적관심사들을 토의한 것으로알려졌다。

그로미코외상은 이날 회담장을 떠나면서 공동성명이 이날중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말외에는 일체 논평을 회피했다。

◇레이건 政府출범후 첫美蘇 高位회담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左)과 안드레이·그로미코 蘇聯외상이23일, 유엔의 美國대표부에서 회담 하고있다. 【뉴욕23日 AP電送=聯合】

"科學技術、國力직결

技能人 基金마련 경제적 支援"

全대통령、大德연구단지 시찰

【大田=尹國炳기자】 全斗煥대통령은 24일『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實用化할수있는 산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하고『과학기술연구소와 산업체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져 정보교환、기술지원등이 지체없이 이루어지는 과학센터시스템을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낮 忠南大德연구단지내의 한국기계연구소 大德分所에서 大德연구단지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등 1백여명과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과학기술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품질개선등 기술개발연구에 역점을 두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 80년대는『우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列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며 선진국의기술을도입할때는쉽고 가능한것부터 단계적으로 개발해야한다』고 말하고『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技能人의 양성보다도 그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前提、기능인을 보호하기위해 강력基金을 조성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과학기술개발의 成敗가 한국의 흥망에 직결된다』고 강조하고『여러분은 책임과 사명감을갖고 새기술개발등 각분야에서 모든 충정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한국기계연구소 大德分所、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분소、한국화학연구소、쌍룡중앙연구소를 차례로 시찰했으며 오찬에 앞서서는 한국표준연구소도 둘러봤다。

全대통령은 이어 제16회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忠南기계공고에들러 洪性澈대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뒤 소퍼만들기、製靴、旋盤등 각분야별 대회장을돌아보면서참가선수들을격려했다。

全대통령은 大德연구단지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시찰한뒤 이날하오 歸京했다。

盧泰愚 2政務장관 安保會議위원 임명

정부는 盧泰愚 정무제2장관을 21일자로 국가안전보장회의위원에 임명했다。

教師순환轉補制 그게緩和

文教部 내년부터 한學校 長期勤續가능

문교부는 지금까지 전국20만교사의 인사교류원칙이 돼온「교사강제순환근무제」내용을 대폭수정하는 한편 이를 각시도의 실정에 맞춰 해당 시·도교육위원회가 재량운용하기로했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순환근무제의 세칙을 규정하고있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19조를 전면 삭제하기로 했으며 각시·도교육위원회에대해 교사전보에 관한새 규칙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23일 문교부당국자는『근속기간과 평점에의해 교사를 정기적으로 강제이동시키는 순환전보제는 이제도가 갖는 경직성때문에 그동안 많은폐단이 있었다』고 지적하고『각도교육감이 마련하는 새 인사교류원칙은 문교부의 심사를거쳐 82학년도초부터 적용시킬것』이라고밝혔다。

이당국자는 현재의 교사순환근무제가 교사개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않고「모든교사는 도시학교、그중에서도 여건좋은 학교로 전보되기를 원한다」는 전제위에 출발한것이어서 시골학교나 낙도、혹은 벽지학교에서 장기근속을 원하는 교사에게까지 그길을 막고있다고 지적하고『앞으로 한학교에 장기근속함으로써 교육자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교사들에게는 그같은 길을 열어주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그러나 현 교육여건상 해교의 교원편성에관해 교사개인이 갖고있는 전보에 관한 기득권은 보호될것』이라면서『교원인사개편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가 그교사를 꼭 필요로한다고 인정할때 장기근속의 길을터주어 교육을 주인의식을갖고 창의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데 그목표가있다』고 설명했다。

이당국자는 또 도시학교로 몰리는 경향에대해 앞으로 도서·벽지학교근무에 대한 가산점을 낮추어 이같은 경합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教育税 재산세附加 他税源있으면 再考"

權民正총장

民正黨은 교육세신설에 관한 정부案에 구애받지않고 공청회나 국회심의과정을 통해 각계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代案을마련하되 필요한 稅源을 다른데서 확보할수있는 방안이있다면 가능한한 재산세에 附加하지않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權正達사무총장은 24일『국회常委의 심의과정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의견을 들을것』이라고 말하고『합리적인 代案이나오면 政府案에 관계없이 이를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재산세에 대한 교육세부가에 관한 재무부의설명도 근거가 없지않다』면서『그러나 黨으로서는 납세고지서가 바로 주부에게 가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재산세附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民·商法 개정延期

政府、공청회거쳐 내년最終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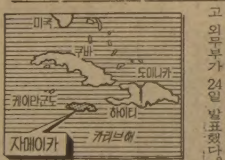
정부는 지난6월부터 연내통과를 전제로 검토해온 민법과 상법의 개정을 일단 내년도로 미루고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을 피하기위해 특별심의위를 구성、공청회등을 거쳐 최종개정안을 마련키로했다。

李鍾元 법무장관은 24일『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민·상법의 개정은 모든국민의 권리·의무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만큼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두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기위해 10월중에 학계、경제계、법조계등 사계의 권위있는 전문가 30~50명으로 민·상법개정 특별심의위를 구성키로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심포지엄과 간담회등을 통해 각계 각층이 제시한 의견과 건의및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적 관행등을 분석、검토한 결과 민·상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나 급격한 변화는 법질서의 급격한 혼란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개정이 거론되는 사항중에는 이미 수시로 민·상법을 보완하는 특별법의 대상도 섞여있으므로 최소한 시간의 여유가있으며 따라서 두법의 개정은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메이카首相 내달10일訪韓

中南美 카리브海에 위치한 자메이카國의 에드워드·필립·조지·씨아가 首相내외가 南悳祐총리의 초청으로 오는10월10일 공식 來韓한다고 외무부가 24일 발표했다。



5年미만경력 記者 1週間씩 研修교육

어제부터 60명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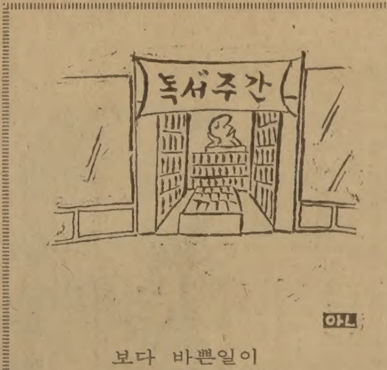
韓國言論研究院(원장 尹壬述)은 전국수습기자들의 1개월 기초과정연수를 끝내고 24일부터 신문·방송·통신등 전국언론기관에 소속된 5년미만경력기자 8백여명을 대상으로 초급과정언론인 연수교육을 실시한다。올해안에 60명단위로 1주간씩 7차에 걸쳐 실시하며 이어서 82년상반기까지 계속될 초급과정연수교육은 전문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일반교양및 시사문제특강등 16개강좌가 실시된다。

本報 오타와支局長 트뤼도訪韓때 隨行

【토론토支社24日】 트뤼도캐나다수상의 방한을 취재보도할 수행기자단(32명)의 일원으로 본보 토론토지사李泰熙오타와 지국장이 한국기자로 유일하게 선발됐다。李지국장은 오는27일 트뤼도수상과함께 캐나다를 출발한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보다 바쁜일이 하도많아서…

地平線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경찰은 일본경찰이다。미국 덴버대학의 데이비드·베일리교수는 그 일본경찰의「비결」을 연구과제로 삼고있다。그「비결」을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범죄 급증추세를 막아보자는것이다。▼장기간에 걸친 일본 현지조사 결과를 단행본「일본의 경찰」로 펴냈던 베일리교수의 평가는 일본의 치안상태가 미국에 비하여 월등하다는데 근거가 있다。그뒷받침으로 그는 이런 통계를 제시한다。미국의 강력범죄 발생률(人口10만명當의 발생건수)은 60년에 1백60·9이던것이 17년사이 4백66·6으로 높아졌으나 일본에서는 1백88·8에서 1백23·2로 떨어졌다。▼일본경찰 스스로도 이것이 하나의자랑이다。일본 법무부가낸 금년도「범죄백서」는「도시범죄의 국제비교」를 한 항목으로 잡아 東京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도시라고 못박고 있다。그에 의하면、살인사건의 경우 그 발생률은 東京이 2인데 뉴욕은 20·1、런던 4·2、파리 6이다。강도는 東京 4·4에 뉴욕이 9백89·4、런던 98·4、파리가 4백79·1。▼이렇게 현격한 격차를 베일리교수는 경찰의 능력이란 측면에서 분석하고있다。그 결론중의 가장 중요한것이 경찰과 시민의 협조관계다。경찰로서도 이 협조관계를 유지하기위하여 대민접촉에 유의하며、그 창구로서 파출소와 순찰의 기능을 중시한다。그에 비하면 미국경찰은 아쉬움이 많다。그단적인 예가 범죄의 4분의3은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않는다는 통계다。▼우리나라 범죄양상이 미국같다거나 우리경찰과 시민이 그토록 소원하다고 말할수는 없다。하지만 강도를 잡아 5건의 범행을 자백받고 보니、그중 3건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보도 (한국일보24일字11면) 는 걱정스런 한 단면을 보여 준다。신고를 안한까닭은「창피하다」「귀찮다」는 것으로 귀착이 되겠으나、경찰 수사력의 불신、비밀보장에 대한 미심쩍음이 그 바탕일 것이다。▼그러나 신고기피의 결과는 무엇일까。신고를 안했기에、다음날 또 강도가 들수도 있다。내집아니면、이웃집일지도 모른다。이런 유추를 사회전체로 확대해 보면 그 결과의 엄청남을 알것이다。일반시민에게 강도를 잡을 의무는 없더라도 그의 신고는 최소한의 의무다。이 최소한의 의무마저 다하지않는다면 다른 나라의 범죄양상을 남의 일로만 보지못할 날이 올지도모른다。신고하는 시민、신고받는 경찰이 다함께 생각해볼 대목이다。

◇알림=紙面사정으로 7면연재소설「流星의賦」오늘 쉽니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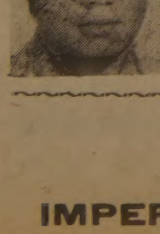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33
은: 온스당 US 9.4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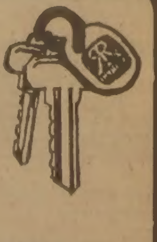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 생명교육보험
* RRSP
(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홍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533-4125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F.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西獨폭동 11개都市로 擴散

2만여青年들 銀行·경찰서등에 放火

◇警察에 쫓기던 西베를린데모청년 轢死 西베를린市에서 주택난에항의, 시내8개 건물을 점거한 데모대원들중 한사람인 18세의 청소년이 22일 이건물들로부터 데모대원들을 몰아내기위해 출동한 경찰에쫓겨 도주하다 시내버스에치여 사망한 광경. 【베를린22日AP·聯合】

제2 北아일랜드事態 방불

데모隊 死亡이후 示威격렬

【西베를린·본23日AP·UPI=聯合】수만명의 서독 청년들은 23일 西베를린·본·프랑크푸르트·뮌헨등 전국 주요11개 도시에서 지난10개월만의 최악의 도시폭동을 전개, 은행 경찰서및 관공서에 다치는대로 방화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과정에서 폭동진압에 나선 경찰관1백여명이 부상하고 25개은행건물및 수개경찰서가 불붙었으며 폭동관련자 1백2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약2만명의 폭동 청년들은 이날 西베를린에서 동료1명이 시위도중 사망한데 분개, 헬미트와 마스크를 착용한채 50여명씩떼지어 경찰서 은행 승용차및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고 상점을 약탈했다.

청년들의 행위가 폭동행위로 진전되자 경찰은 최루탄과 水砲를 사용, 폭동진압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목격자들은 이날의 폭동이 마치『내란』또는『제2의北아일랜드사태』를 보는것처럼 격렬했다고 말했다.

西베를린의 폭동과 때를같이하여 본 프랑크푸르트 하노버 뮌헨 슈투트가르트 브레멘 프라이버그및 아헨등전국10개도시에서도청년들의격렬한시위가벌어져이번폭동사태가확대일로를치닫고있다.

프랑크푸르트 에서는 이날 약4백명의 시위자들이 경찰차와 건물유리창을 부수었으며다른 도시에서도 이와유사한행위가 벌어졌다.

이와 동시에 네덜란드의암스테르담에서는 약 4백명의 시위대가 서독청년들의 데모를 지지, 反경찰구호를 외치며 서독영사관건물의 유리창을 부수는등 행패를부렸다.

이날 전개된 서독청년들의 폭동행위는 약2천명의 경찰이 22일 西베를린 쇠네베르크지구의 무단거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발단됐다.

경찰이 이날 단속에 나선 8개건물중 5개건물의 무단거주자들은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으나 나머지3개 건물 점유자들은 바리게이드를 불태우는등 경찰과 충돌을 벌였다.

波노조、蘇위협反擊

公開書翰보내고 軍엔 臨戰촉구

【바르샤바23日UPI=聯合】폴란드자유노조지부들은 소련의 비난과 위협에 대한, 23일일제히 소련노동자들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폴란드軍에 대해『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위해』임전태세를 갖추도록 촉구했다.

폴란드전국의 자유노조지부들은 최근 소련이 경고메시지를통해 對폴란드자유노조비난선전공세를 강화하자 이에 반발, 역시 서한을통한 반격작전을 시작했다.

아프간反政軍、大攻勢

칸다하르市 장악…首都카불猛攻

【뉴델리·케타(파키스탄)23日AP·AFP=聯合】反蘇항전중인 아프가니스탄회교반군은 최근 아프간 제2의도시 칸다하르(인구23만)를 집중공략, 이도시를 사실상 점령했다고 이전투에 직접 참가했다는 파키스탄의 케타에 도착한 반군게릴라지도자·메스타지르(35)가 23일 밝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반군세력은 최근 수도카불시내의 소련및 아프간정부 건물들을 「대대적으로」공격, 카불시내는 현재 통금과함께 삼엄한 경계태세가 내려져 있다고 익명을요구한 뉴델리주재 한 외교관이 이날 전했다.

메스타지르는 자신이 지난 18일 5백명의 반군게릴라들을 이끌고 칸다하르시 중심가로 진격해 들어갔다고 말하고 이 전투에서 소군탱크 8대가 파괴되고 12명의 반군이 사망했으며 1백20명의 시민이 소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칸다하르 공략에는 약3천명의 반군이 참전했으며 정부군은 그들의본부와 시청사가 위치한 공항쪽으로 퇴각,군병영 1개소와『유령지대』와 다름없는 主행정구역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뉴델리의 외교관은 반군측의 카불공략개시와 관련, 아프간주둔 蘇軍및 아프간정부군은 최근 동북부 전략요충인 판지시르계곡에대한 공격을 강행했으나 쌍방합쳐 최소한 4백명의 희생자를 냈을뿐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외교관은 蘇·아프간연합군이 카불동북부 약1백20㎞지점에 위치한 이 반군보급요충을 반군으로부터 탈환하기위해 대규모 소탕작전을 강행했으나 거듭 부분적인 승리만 거두는데 그쳤으며 병력을 이 계곡으로부터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이날 카불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카불주재 소련대사관과같은 지역에있는 아프간게릴라단체『사마』가 카불공략을 주도하고있다면서 그러나 소련대사관이 지난17일밤반군게릴라들로부터 습격을받았다는 보도들을 확인할수없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최근 3주동안의 판지시르계곡 전투에서 소군및 정부군측은 3~4대의 헬리콥터와 10~25대의 탱크 또는 병력수송용 장갑차를 잃고 1백~1백50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반군및 민간인 사상자수는 사망50~75명, 부상3백~5백명이라고 밝혔다.

아프간 反政府軍에 中共·사우디도支援

【뉴욕24日AP=聯合】中共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집트및 파키스탄과 함께 소련군에 저항하고있는 아프가니스탄회교반군에 무기를 제공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고 美ABC방송이 23일 보도했다.

ABC방송은 아프간반군들을 돕기위해 무기들이 中共과 이집트로부터 파키스탄에 수송됐으며 이같은 무기의 재정적 뒷받침을 사우디와 미국이 맡았다고 밝혔다.

美、西南亞방위 置重

와인버거 "유럽·東北亞보다 蘇위협커"

【워싱턴23日=曺淳煥특파원】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유럽과 동북아시아는 서남아시아보다 소련및 그대리 세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덜 위협을 받고있다고 미행정부는 평가를 내리고 미국은 비해 군사력과 자금을 서남아시아 방위에 집중투입하는 새전략을 세우고있다고 23일미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증언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는 그지역의 부유한 우방들이 이戰域방어에 그들 스스로 방위를 더 맡을수있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그나라들을 나토동맹국과 일본을 직접 지칭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종전의 유럽중심군사전략에 대비했던 지상에 기지를둔 미공군력의상당부분을 서남아시아방어에 대비하고있는 긴급출동부대로 재배치했다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서남아시아에도 군사력이동을위한 전략공수계획을 강화했으며 지리적으로 미국에 불리한 이 서남아시아에 美해군력강화를위해 공격타격함대를 증강할것이라고 말했다.

와인버거장관은 80년에 2개사단으로 구성된 이긴급출동부대는 83년과 87년에현저히증강될것이라고덧붙였다.

白頭山에 衛星관측소

中共서 設置

【홍콩23日=聯合】중공이 최근 발사한 3개위성의 관측소를 한반도와 중공의 국경지대인 백두산에 설치해놓은 것으로 23일 보도되었다.

홍콩의 중공계 일간 大公報는 23일 중공에서 발행되는 중공당청년단기관지 中國靑年報를 인용, 중공이 지난20일 1개의 로키트로 쏘아 올린 3개위성의 발사사실을 다시 보도하면서『長白山』(백두산)에 이미 위성추적 관측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장백산」은 백두산의 중국이름으로 한국과中共간에 백두산을둘러싼 영토의 해석이 분명치않은 상태에 있다.

메아리

韓國領 백두산

한반도의 원류라고 할수 있는 장백산맥의 중심지. 지도상의 위치는 북위 42도7분 동경 1백28도5분, 한남 혜산군과 함북 무산군의 경계에 웅자를 드러내고 있는 靈山이 우리의 백두산이다.

산정으로부터 그아래로 4백㎞사이에 흰돌이 덮여 있어 마치 흰머리 같다고해서 백두산이라 불렸다. 그래서 우리는『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라고 노래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중공측에서 자주 흘러나오는『백두산소식』은 어딘지 심상치가 않다. 첫째가 괴물출현설이었다. 영국의 네시를 닮은것 같은 괴물을 중공측은 소위 2명이 천지에서 발견하고 촬영을 가했다고 전해졌다. 과학자들의정밀조사결과 괴물의 정체가『나방이다、거위다、수달이다』고 하면서 어물어물 넘어갔다.

두번째로 백두산관광지 개발 계획이 또한번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이 일대는 냉·온의 교차가 심해 1년중 절반은 따뜻하고 절반은 춥다. 이 기후조건과 훌륭한 경관을 밑천으로 남북세계의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들이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후「장백산인삼」이 수출용으로 등장했다.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중공은 이곳에 인삼밭을 일구었다. 뿐만아니라 白丁香 같은 희귀나무를 벌목하여 수출용목공예품으로 만들어 판다는 보도도 있었다.

유네스코는 1979년 백두산일대를 세계50대 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남벌의 손길마저 뻗쳤다니 얼마나 황폐해졌을까 답답하다.

「두고온 山河」의 비극이 다시 한번 새삼스러워 진다. 우리가 두고 두고 걱정하는것은 이런 불길한 소식이 전해주는 백두산의 영토권이다.

중공은 며칠전 3개의 인공위성을 동시에 쏘아 올렸다. 70년 첫 위성을 발사한후 1개의 추진로키트로 3개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것은 미·소에 이은 세번째로 그 의미가 크다. 이 3개인공위성을 추적하기 위해 위성관측소를 백두산에 세웠다고 한다.

중공이 발간한「最新分省地圖」는 백두산 천지를 吉林省에 포함시켰다. 민족의 고향이 어쩔수 없이 이 겨레와 멀어지는 것같아 안타깝다. 아무래도 영토권을 놓고 北쪽끼리 무슨흑막이 있지나 않았는지 의심이간다. 그럴수록 우리는 거듭거듭 백두산이 우리영토임을 강력히 밝혀두어야 한다.

유럽駐屯 美軍생활 實態

보유武器는 最新… 제반施設은 最悪

士氣저하로 無氣力속 麻藥·술 常用

【하나우(西獨)聯合=特】유럽주둔미군은 미사일에서 테이다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고있으나 이 무기를 조작하는 군인들은 거의 빈민가와 다름없는생활조건속에서살고있다.

또한 이처럼 값비싼 무기가 유지되는 보관조건역시나쁘기는 매한가지다.

이같은 미군들의 나쁜생활조건은 사기에 영향을 끼쳐 스스로를 무기력하게하고 마약과 술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군대에재입대하지 않는다. 군당국의 막사시설조사에서 뉘른베르크지의 한사병은 소속부대의화장실과 막사에서 풍기는악취가 너무심해 어떤 중류층사람도 그리고 어떠한 중간운명권의 사람도 그곳에서 생활할수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西獨내 군막사의 일부시설은 지난17세기에 세워진것이며 18세기에 건립된것도다수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독일군을 위해 2차대전이전에지어진 것들이다.

한 중대장은 부대원들의측석 오줌검사결과 1백56명중 7명이 습관성마약중독자、그리고 5명이 알콜중독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건물들이 대규모 수리를 해야할 정도로 낡았다고 지적하면서 1610년에 지어진 부츠바흐성은 프러시아군에 의해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정비시설이 긴급히 향상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마군의 주력 야전탱크인 M60은 정비건물의 문을 통과할수 없어 건물밖에서 정비를 받고있는 실정이다.

미군장교들은 주차장과정비지역의 개수및 재건이 80년대 미군의 수백만달러짜리 M1탱크및 퍼싱II 미사일도입과 함께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지적했다.

이새로운 탱크와 미사일이 적절히 유지 보존되지 않을경우 예산의 낭비와 군출동태세의저하가유발될것이다.

장교들은 군인들의 생활조건과함께 정비및 시설개선이승워싱턴에서 새로운 예산이승인돼 서독으로 유입될때 우선적으로 처리될 분야라고덧붙였다.

아프간抵抗軍 외롭지않다

西方측 支援힘입어 곳곳서 戰果

◇아프간反政게릴라들이 파키스탄접경 알리겔지방에서 소총으로 격추시킨 미그機잔해앞에 둘러서있다.【AP】

10만蘇軍 게릴라戰에 골탕

통합反政軍 조직적 抗戰도

소련의 아프간침공 21개월째. 그동안 소련군및 아프간정부군과 反政회교세력은 아프간전국에서 밀고밀리는 泥田狗鬪를 계속해 왔다.

소련은 10만여명의 정규군을 투입, 反政세력소탕에 나섰으나 산악지방을 거점으로하여 낮에는 숨고 밤에는 쳐들어오는 게릴라전법을 사용하는 회교저항군들과의 전투는 1진1퇴의 연속이었다.

소련은 아프간 전국토의 90%이상에서 활동하고있는 저항군들을 소탕하려고 쿠바、베트남、北傀등 게릴라전문가들까지 투입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저항군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어져 23일에는 반군들이 아프간 제2의도시 칸다하르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보도마저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프간 反政세력은 지난21개월에걸친 對蘇항전사상 최고의 개가를 올린셈이 된다.

오합지졸로만 여겨져 왔던 아프간 反政軍은 최근 전열도 가다듬고 장비도 현대화했다.

10여개분파로 나뉘어져 서로 반목하던反政세력들은 지난6월 파키스탄의 페샤워르에서 회교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회합을갖고 하나의깃발아래 뭉쳐 反蘇투쟁을 펴기로 결의했다.

「아프간·무자헤딘 화교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反政세력은 과거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강력한 對蘇참전을 수행하게 됐다.

소련군으로부터 노획하거나 투항한 정부군 병사들이 가지고온 구식소련제 소총이나 조잡한 자가생산제품무기로 무장했던 反政세력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反蘇국가들로부터 제공되는 무기들을공급받아 전력이 증강됐다.

지난7월 미국의 뉴·리퍼블릭誌가 폭로한바에 따르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중공、파키스탄등 反蘇5國은 美CIA의 주도아래 소련의 아프간 침공 직후부터 아프간저항군들에 자금및 무기지원을 해온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도에 따르면 미국과사우디는 매년 2~3천만달러이상의 자금을 지원했고 이집트는 과거 소련으로부터제공받았던 무기들의 재고품이나 자체생산무기를 제공했고 중공은 이들무기의 자국영공통과를 허용했으며 파키스탄은 이를 직접 저항군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도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집트에서 소련제 무기를 사갔다고밝혀 이보도가 사실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아프간反政세력들은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소련의 무장헬리콥터를 격추시킬수 있는 對空砲나 對戰車砲를지원해달라고 서방각국에 호소해왔다.

지금 아프간저항군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풍부한 소총과、탄약、기관총 對戰車砲들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소련은 이미 아프간에 10만명가량의 정규군을 투입했으나 2만여명의 병력을 손실했을뿐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소련이 아프간침공이후 가장먼저 착수했던 아프간정부군 재건계획은 물거품처럼부서져 버렸다.

소련의 침공이 있기전 9만여명에 달했던 아프간정부군은 20개월동안에 전사자와 탈주자가 속출、3만명정도로 줄어들었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당초 아프간에 진주한 소련군의 기본목표는 아프간정부군이 모스크바에 대항하여 봉기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아프간정부군을 독려하여 사기를 높이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아프간정부군이 부닥친 가장 큰 문제는 계속되는 탈영과 反政세력들과 싸우기를 싫어하는 점이다.

최근 카르말대통령은 軍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봉급을 올리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주겠다고 말했으나 별다른반응을 얻지못하고있다.

아프간정부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위해 징집연령을 20세로 1년 낮추고 35세미만의 예비군은 1년더 현역에 복무할경우 재정적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카불등지에서는 예비군및 의용징집대상자인 18~19세 청년들에 의한 징집반대데모가 그치지않고있다.

서방분석가들은 소련이 현재와같은 상황에서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지금의 2배이상의 병력을 동원해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에비례해서 反蘇진영의 反政세력지원이 더욱 확대된다면 이는 소련도 원치않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레이건美행정부가 아프간문제해결을 위한 對蘇 비밀협상을 개시했다는 보도도 있는만큼 소련으로서는 적당한 名分이 있다면 어느정도의 정치적해결도 가능할지도 모른다.【朴永喆기자】

颱風에 比군함 沈沒

58명死亡…2次大戰후 最大의재난

【마닐라24日AP聯合=特】태풍 「클라라」호에 휘말린 구축함겸 필리핀해군장교 52명을 포함 모두 58명의 해군장병들이 사망했으며 생존자는 18명에 불과하다고 필리핀해군당국이 24일 발표했다.

필리핀해군당국은 이번 사고는 제2차대전후 필리핀해군이 당한 가장최악의재난이라고 밝히고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직 계속되고있다고 덧붙였다.

해군당국은 이번 사고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13~30m의 파도가 북부필리핀해안을 강타하는동안 항해사실에 남아있었다고 발표했다.

◇포터기다리는 로보트 로보트 시코君이 뉴워크국제공항에서 자기의 가방을 들어줄 공항포터를 기다리고있다. 시코君은 인터내셔널 로보틱스社 제품으로 가격은 약25만달러 정도라고.【뉴워크(뉴저지州)23日AP聯合】

海外토픽

★濠、특수軍退役장병들로 海賊소탕회사 設立

호주퍼드시에서는 최근 특수공군부대출신 퇴역장병들로 구성된 해적박멸회사가 설립돼 동남아해역에서 날뛰고 있는 해적소탕전에 나섰다.

이 회사는 싱가포르 인근 공해상에 해적들이 난무하고있어 이해역을 통과해야만하는 유조선등 각국 선박들이 입고있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착안한 한 특수공군부대 출신 퇴역장교에 의해 설립됐는데 고객들이 요청할 경우 완전무장한 요원들을 출동시켜 필요할경우 해적을 사살하기까지 하는것이 이 회사의 영업방침이다.【퍼드=AP】

★佛醫師들 世界最初로 쌍동이 부분手術

일단의 프랑스의사들은 네쌍동이를 임신한 한 여인에게 세계최초의 부분낙태수술을 실시했다고.

프랑스의학전문지 파노라마·뒤·메드생에 따르면 31세의 이 여인은 임신한 네쌍동이중 두쌍동이가 낙태수술로 제거됐는데, 이 여인은 고혈압환자이기 때문에 유산할 위험에 빠져 있었다는것.【파리=AP】

문화단신

韓·日학자들참가 日本學會 발표회

한국일본학회가 마련한 제8회국제 학술발표회가 26일 상오10시 中央大에서「韓日근세교류사」란 주제로열린다. 발표될 주제는 ▲稻荷山古墳出土鐵劍銘文에 관한 고찰(柳承國·成大)▲韓國의在地豪族과 일본(渡部學·武藏大)▲조선西學과 蘭學(李元淳·서울大)▲日本근세통신사회에 있어서의 주자학과 한국(이조시대)의 관계(倉田康夫·中京大)

외신안테나

★美、對쿠바放送局 설립

레이건美행정부는 23일 쿠바政府가 지난20년동안 국민들에게 거짓선전을 해왔다고 비난하면서『쿠바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새로운 對쿠바방송국을 설립할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AP】

★레이건, 에너지省폐지결정

레이건美 대통령은 연방예산삭감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省을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24일 이를 발표할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토비·모페트하원의원의 대변인은 정통한 행정부소식통을 인용, 레이건 대통령이 에너지省이 맡고있는 核에너지정책과 核에너지개발연구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나머지 분야는 기존연방기구들에 분산시킬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UPI】

한국인의 통닭집

NEW OPENING SPEC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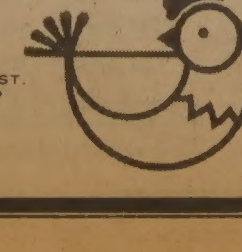
한국사람 입에 맞는 통닭구이 집을 개업했읍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 파티용 샌드위치통닭
●각종 Meat취급(불고기, 갈비포함)

※거리 불문코 배달함(단, 파티용 샌드위치 주문은 하루전에 연락을 요망)

미스타 김
미스타 리 올림

658 ½ BLOOR STREET W.
전 화 : 537-0432



BLOOR ST.
MANING AVE.

DOMINION SMALLWARES

◆◆ 금주의 스페샬 ◆◆

기간 : 9월21일부터 10월3일까지

Family Size Choco Bar	24/99¢	15.09
Reg. Size Choco Bar	36/40¢	9.95
Caramilk Thick Bar	36/55¢	13.75
Leaf Ball of Fire Gum	48/ 5¢	1.45
Navy Corn Gum	200/ 3¢	3.89
Dad's Apple and Oatneal Cookie	12/30¢	2.09
Sun Flower Sees with Shell	25/25¢	3.95
Life Savers Candy	25/30¢	4.45
Y & S Twizzlers	60/ 5¢	1.95
Big Leaugue Chew	12/59¢	4.65
Raiders of the lost Ark	36/25¢	6.14
Kisko Drinks	24/30¢	4.09
Soft Granola Bars	40/40¢	7.33

이 기간동안 핼로인 캔디5% 더 할인해 드립니다.

DOMINION SMALLWRES
(Cash & Carry에 한함)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약간의 세일즈맨 모집

海記飯店

HOI KEE REST.

●CLAM ●SNAIL
●LOBSTER ●CRAB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이 광고를 갖고 오시는 분에게는 10% 감해 드립니다.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한국考古學 어디까지 왔나

외솔회講演會、金貞培교수 주장

遺跡발굴·技術面선 世界수준 理論이나 方法論은 크게뒤져

"올바른 歷史像 그릴수없다" 우려表明

우리나라의 고고학계는 유적의 발굴과 기술의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올라있는것으로 평가되고있으나 고고학자체의 이론이나 방법론등 이론적 측면에있어서는현격하게 뒤지고있는것으로 나타나 그개선책이 요구되고있다.

고고학계의 이론과 실제의 이같은 不協和현상은 지난23일 외솔회가주관한 한국학학술강연회에서 金貞培교수(高大)가 우리나라 고고학계의 문젯점으로 지적한 것으로서 金교수는『이론적 바탕이 허약할경우 아무리 훌륭한역사적발굴이 있을지라도 올바른 歷史像을 그려낼수 없다』고 우려했다.

金교수에의하면 우리나라 고고학계의 이론적국면을 볼면『최근에 들어와 겨우 세계학계의 경향을 일부 알리고있는 정도』이고 일부고고학자들이 개인의 능력에따라 새로운 업적을 쌓고있는 과정에있으나 西歐학계에서 볼수있는바와같은 논쟁은 아직 찾아 볼 수 없다는것.

이에따라 우리학계는 과거를 짜맞추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별적 사실의 규명과 그러한 사실의 해석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金교수는 고고학계의 이같은 경향때문에 우리나라는자연히 유물과 유적의 계통론이 우위를 점하고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의 발굴과 발견에 관심이 집중돼있다고밝히고 西歐의 전통고고학이지향하는 단계와는 많은 국면에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유럽의경우 고고학은역사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인류학의 분야로 밀착되어있는데우리의경우 역사학 쪽이나 인류학쪽이나간에 이론과 방법을 제대로 소화하지못해 큰 발전을 보지못하고 있다는것이다.

金교수는 우리학계가 고고학의 이론이나 방법론에관한 저서가없다는것도 이를 反證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싶지어 고고학개론도 아직 출간되어있지못한 상황을 개탄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원용,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있다고 지적했다.

金교수는『우리고고학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고학이 「民族學」(Ethnology)과연결되어야하며 오늘날「民族고고학」(Ethno-archaeology)의탄생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있다』고 강조하고 고고학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초점은 사회가 문화발전하면서 계층이 생긴사실과 이에 관련된 유물과 유적을 새롭게 해석하는 자세를 견지해야할것이라고 역설했다.

金교수는 또『일반적으로 고고학은 민중의 역사를 더 실감있게 파헤치는 작업에열중해야한다』고 말하고 그이유는 역사의 기록이 주로 지배층중심의 사실이기때문에 민중의 역사가 항상 묻혀버리기쉽다는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丁熹기자】

◇金貞培씨

「文學」중심에서 「思想」까지

유네스코、飜譯·海外출판사업 擴大강화

學術

推委에 歷史·漢文분야 전문가포함 / 내년에는 元曉사상·禪家龜鑑 착수 / 信仰原典·文獻등도 옮기기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禪家龜鑑·원효사상등 한국전통문화의 번역·해외보급 활동을 보다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지난 74년부터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구성, 운영해온「한국문학 번역및 해외출판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개편된 위원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문학과 역사및 한문원전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대표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 역사및 한문원전및 사상분야의 학자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편된 위원회는 지난15일 하오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에 李家源교수(延世大)부위원장에 張德順교수(서울대)를 각각 선임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한국문학 번역및 해외출판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크게 강화한 것은 지난 61년 코리아·저널 (Korea journal) 창간과 함께 시작한 한국문학작품 번역및 해외 출판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그동안 용비어천가, 구운몽, 춘향전, 한국시선집및 시조선집을 영어, 불어, 화란어로 번역, 우리문학을 해외에 소개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번역작업은 문학작품에 국한돼 그동안 아쉬움을 덜기위한 첫작업으로 번역분야를 세계의 정신문화교류에 기여한 한국고유의 전통사상과 신앙의 원전자료및 문헌까지 확대키로 한것이다.

유네스코가 내년 후반기부터 영·불어등으로 번역, 해외에 선보일 책중에는 元曉사상, 禪家龜鑑, 普照國師語錄, 李奎報의詩文選, 櫟翁稗說등이 들어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이러한 책들이 유네스코본부에 출판기금을 신탁, 유네스코의 이름으로 해외에 소개되기 때문에 한국의전통사상을 보다 널리 소개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본부외에 문교부·문공부등 정부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이계획을 밀고나갈 방침이다.

개편된후 첫 모임을가졌던 한국문학번역및 해외출판추진위원회는 곧 2차모임을 갖고 전통사상 해외소개등 번역대상도서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로 위촉된 위원명단은 다음과같다.

▲시·평론=金禹昌(高麗大) ▲산문=金允植(서울大) ▲고전=張德順(서울大) 金東旭(延世大) ▲역사=李基白(西江大) ▲유교=李楠永(서울大) ▲불교=高翊晋(東國大) ▲한문원전=李家源(延世大) ▲관계기관=차종호(문공부 국제교류국장) 백승길(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부장) 【李炳日기자】

千一夜話 生物의 世界

舞姬같은 스트립으로 흥분의 絶頂에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스트립쇼라고 하는 것을 3流 나이트 클럽에서 큰돈안들이고 감상(?)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룸 살롱을 무상출입하는 돈많은 단골손님이 아니면 관람하기 힘든 신흥 貴族들의 演藝物이 되어버렸다.

이왕 스트립 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처음부터 스트리퍼가 알몸뚱이로 나와서 여성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시 드루 룩의 엷은 의상에다 목도리, 팔목장갑, 그리고 실크 스타킹 따위로 거의 밀폐된 상태로 나와선 섹시 뮤직에 맞춰 선정적인 율동과 더불어 매우 느린 템포로 하나씩 하나씩 裸身의 꺼풀을 벗어나간다. 그러다가 최후의 보루를 지키고있는 가리개가 벗겨져 던지는 순간 전등이 꺼진다. 바로 여기에 스트립 쇼의 묘미가 있다.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여체의 모든 것을 속시원히 보여준다면 스트립 쇼의 관객은 흥미를 잃고 흥행에 실패했을 것이 틀림없다. 스트립 쇼가 남성들의 심금을 사로잡는 키 포인트는 이 감질나는 노출에 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남성 특유의 性心理가 몇몇 포유동물에서 똑같이 엿보이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수 없다.

짐승의 암놈이 발정하면 수놈에게 순간순간 성기를 보여주는 작전을 쓰는데 그렇다고 만나자마자 불문곡직하고 자신의 국부를 수놈에게 들이 대는 것은 아니다. 즉 처음엔 음문을 꼬리로 살며시 가린 정숙한 상태로 있다. 어쩌면 스트립을 시도하려는 舞姬의모습과 비슷하다. 스트리퍼가 선정적인 스텝으로 무대를 돌며 때때로 여성의 色情帶를 슬금슬금 보여주는것처럼 동물들은 쫓고 쫓기는 <사랑의 유희>를 벌이는 동안 뒤쫓아오는 수놈에게 꼬리를 들어 살짝 秘所를 공개하여 흥분하게 만드는 야금야금 수법을 즐겨 이용한다.

예를들어 쇠사슬에 매인 암 수두마리의개를 끌어다놓고 인위적으로 교미시키려고 별별 사탕발림을 다해도전혀 의욕을 보이지 않던 犬公들이 목에 걸린 사슬을 풀어주면 쏜살같이 어울려뛰어다니면서 관람의 점프곡예를 벌이다가 종국엔교미로 이행하는데 이때 점프는 성기공람의 한 기교라고 학자들은풀이한다.

고양이의 경우도 비슷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랑의 서커스를 벌여야만 수놈이 성적으로 흥분, 섹스에의 완벽한 스탠드 바이 상태가 되는데 이것도 알고보면 일종의 스트립 쇼인 것이다. 삵쾡이는 우리속에 가둬두면 수놈은 성욕을 잃고 임포텐스가 되는데 그것은 넓은 공간을 뛰고 달리며 전개하는 성기쇼가 불가능해서 생긴 결과이다.

이들은 수놈이 암놈의 꽁무니를 바짝좇는 동안 여음의 桃花境을 목격함은 물론 그곳에서 발산되는 최음가스의 냄새에 뇌살당해 성교의욕이 살아난다.

이같은 섹스 쇼의 요체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되는 意外性에 그 기저를 두었다고 말할 수가 있으렸다.

郭大熙〈비뇨기과전문의·醫博〉

나의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㊺

悲運의 두사람

北傀의 金日成은가짜…진짜金日成은 日陸士나와 / 한때 우리집穩身… 靑山里서 日軍大破한 金佐鎭 / 다같이 共産主義者들에 被殺

金斗漢군얘기가 나온김에 그의부친 白冶 金佐鎭장군등 나의 家系와 관련있던 몇몇 독립군抗日투사의巨星들에 관해 잠시 얘기를 돌려볼까 한다.

먼저 金日成장군。하와이시절에 잠깐 얘기를했던 진짜 金日成장군에 관해서다。세상이 말하는 金日成장군의 本名은 金光瑞다。그는 舊末에 일본陸士에들어가 韓日合邦뒤졸업을하고「조선군사령부」에서 장교로 있었다。그는 나의 세째형인 致誠형님의 일본陸士후배로 형님이 高宗황제의 侍從武官겸 육군騎兵中領으로 있을때부터 교분이 두터웠는데 형님의 영향으로 그도 일본육사를 나온뒤 騎兵장교가 되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나의 伯父(尹雄烈)가 軍部대신과 元帥府총장을지낼때 副官으로있던 육군工兵參領 金正侯다。그런인연으로 金光瑞는 우리집안엘 자주 드나들었다。내가 그를 처음기억하는 것은 그가 龍山에있는「조선군사령부」에서 기병대위로 있던 시절이었던것 같다。그는 자그마한 키에 馬相의 준수한 얼굴이었다。당시 致誠형님의 말에 의하면 騎兵으로서의 전형적인 체격이었다。그가 일본陸士를 나온건 韓日合邦이듬해로 나이가 25세라고 했다。

金光瑞는 일본병졸들한테 무척엄격했기 때문에 일본군들사이에선「호랑이중대장」으로 불렸다。校洞학교시절 나는 10여년 年上인 그를 잘 따랐다。그는 우리집에 올때면 날보고『야, 치영아 너밀감 좋아하지…』하면서 밀감이나 떡(모찌)을 손에 쥐어주곤했다。어느때인가 그는 致誠형님에게『이젠 군사기술도 익혔으니 더이상 왜놈밑에서같이 있을수없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그런뒤 그는갑자기 몸이 아프다면서 수개월간 병석에 누웠다。병고친다고 일본에가 있기도했다。퇴병이었다。

결국 그는 군복을 벗고는 서울에서 1년반가량 있더니 어디론가 잠적했다。독립운동을 하러 滿洲로탈출한것이다。당시『金대위가 어디로 갔느냐』고 내가물으면 형님은『나도 모른다』며 무서운표정을짓곤 했다。형님이 자금을 주고 탈출을 도왔다는 얘기는 먼훗날들었다。

金光瑞는 滿洲로 간뒤 金日成으로 이름을 바꿨다。그는 滿洲와 露領을 넘나들면서 일본군을 괴롭히며 눈부신 戰果를 올렸다。興安嶺산맥을 타고 神出鬼沒 한다해서 흥안령산맥의 호랑이로 소문났었다。그의 名聲은 중국대륙까지 날렸다。일본신문은 당시 滿洲에서 金日成이란 인물이 日本軍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도했다。金日成장군이 神話처럼 英名을 떨치게 된것이다。그런 金日成장군은 비통하게도露領에서 赤軍쪽을 지지하는 독립군파와의 싸움끝에 사망했다。지금北傀의 金日成은 抗日은 커녕 滿洲에서 우리동포와 중국인들을 괴롭히던두식한 金聖柱이다。金은 해방후 소련의 앞잡이로 平壤에 출현했을때 결국 抗日투사로 가장한 것이다。그가 독립군의 巨將이었던 金日成장군의 이름을 盜用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나는 金日成장군과 함께 또 한분의 抗日勇將인 金佐鎭장군과도 묘한인연을 갖고있다。東京유학을간 이듬해 방학때 桂洞집에와보니 사랑방에 낯선 인물이 있었다。

그가 金佐鎭이었다。당시 致誠형님이 내집에 와 계실땐데 고향 洪城에서 일을 벌인뒤 피신중인 친구 金佐鎭을 은밀하게 지어진 우리집 사랑방에 숨겨주고 있었던 것이다。그는 내집에서 7개월간 숨어있다가 滿洲로 탈출했다。그런 얼마뒤부터 金佐鎭장군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日本軍 1개여단을 전멸시키다시피한 靑山里전투의 凱歌가 들려왔을땐 독립이 눈앞에 다가오는 기분이었다。우린 그 전쟁을 靑山里大捷이라고 불렀다。

金佐鎭장군의 형님은 韓末 駙馬인 東寧宮 金孔鎭인데 東寧宮은 致誠형님의 독립군자금 密搬出과도 관계있어 한마디 적는다。致誠형님은 滿洲에서 독립군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당시 독립군자금용으로 皇室의 金塊8상자를 東寧宮의 집으로 몰래 운반한뒤 경기도경찰부에 있던 內密의 심복인 黃鈺경부를 시켜 독립군한테 넘겼다。그 금괴는 東草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北路軍政署로 넘어가 독립군 무기구입등 抗日투쟁에 쓰여졌다。金佐鎭장군도 그뒤 金日成장군처럼 공산주의자의 손에의해 목숨을 잃었으니 이 무슨 비통한 汚辱의 역사인가。

金佐鎭장군과함께 靑山里전투에서 前官지휘관으로 大功을 세운 鐵驥 李範奭은 나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다。

李範奭은 내가 漢城중학(現京畿중학)에 입학했을때 1년후배였는데 그때 육군사관학교騎兵科를 나오는게 소원이라고 말했다。그는京畿를 1년다니다 그만두더니 국외탈출방법을 물었다。

그때 마침 중국南京에서 金陵대학을 다니던 夢陽 呂運亨이 방학을 맞아 왔길래 李範奭을 만나게해주었다。夢陽이 가르쳐주는대로 그는 중국으로가 雲南省에있는 사관학교 騎兵科를 나왔다。그뒤 滿洲로가독립군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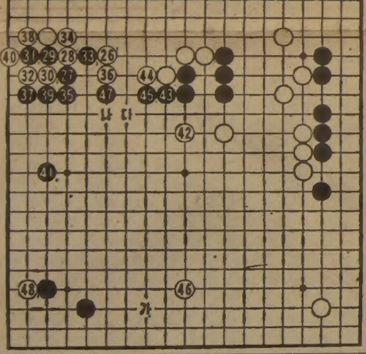
◇日本陸士출신으로 진짜 金日成인 金光瑞장군㊨과金斗漢의부친인 金佐鎭장군。

고 침 : 9월23일자 本欄 사진설명중『張澤相청장(左에서 2번째)』은『左端』의 잘못이었기 바로잡습니다。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4局 第3譜 26~48 (각5시간 덤5집반)

白(4段)鄭壽鉉〈1敗〉
黑(6段)徐能旭〈1敗〉



徐6단은 名人戰외에도 棋王戰、國手戰、國棋戰등 도합4개타이틀전 본선리그에 정착하여 양호한 전적을 올리는 중이며 특히 토너먼트 형식으로 새출발한 王位戰에서는 金寅·曺薰鉉6단및 盧永夏7단과 더불어 우선 8강자리에 시드되어 앞으로의 활약을 크게 기대하고싶다. 그리고 상수길러라는 뜻으로「伏氏」라 불리던것도 지금은 옛날의 일, 불원간 曺薰鉉·徐奉洙의 뒤를이어 한국기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최유망주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상변의 白진영이 26으로 활기있게 형성되자 徐6단은 黑41까지 좌변에 大家를 형성한 작전을 시도했다. 당초 黑27로 白28을 종용하고 黑29로 젖혀붙인것이 좋은수순이었다.

黑、左邊경영에 成功

이것은 먼저29에붙여 白28때 27로되젖힌것과 같은모양이지만 그러나 29쪽을 먼저 붙일경우 白이 꼭28에 젖힌다는 보장은 없는것이다.

가령 黑27로 29에붙였을때 白이 순하게 34자리에 늘어둔다면 이곳은 또다른 양상으로 변하겠지만 좌우간 黑41까지 徐6단은 일단 작전을 성공한셈이다.

白42로는 46에 先行하고싶지만 黑「가」로 육박해전개하는 것이 싫었다는 鄭4단의 국후소감이다. 그러나 白46은「나」혹은「다」에 뛰어나올 찬스라는설도 상당히 강하여 일장일단, 즉 말해서 棋風의 差라고 표현할밖에 없는곳이다. 棋風이라면 黑47이 바로 徐6단답게 두꺼운수라고 할까.

이제와서는 白48로 黑의 응수를 타진하며 여기서 戰端을 모색할 시기인가 보다. 【一凡】

◇金澤壽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내외가 23일 칼·카르스텐스西獨대통령이 IOC위원들을 위해 베푼 리셉션에 참석, 카르스텐스 대통령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있다. 【바덴바덴(西獨)23日AP=聯合】

"政治介入은 올림픽 威脅"

IOC委員長 총회演說

【바덴바덴(西獨)23日AP=聯合】 환·안토니오·사마란치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장은 23일 정치적개입이 올림픽대회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마란치위원장은 이날 제11차 올림픽 콩그레스개막연설을 통해 올림픽운동이 각국정부 및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는것은 긴요하며 각국정부가 국내 각종 스포츠기구들의 독립과 최대한의 자치를 존중하는것 또한 결코 덜중요한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韓化、星武꺾어 3-0

8회 4連續안타 날려

實業야구 8일째

실업야구 후기 2차리그 8일째 경기는 3게임중 한국화장품-星武의 첫게임만을 마친채 비로중단, 남은 第一銀-浦鐵, 롯데-經理團의 2게임은 10월4일로 연기되었다。24일 仁川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첫경기서는 韓國化粧品이 2회초 趙興濩의 좌전적시타로 선제 1점을올리고 8회초 金在博·金奉淵 李光國·沈載元의 연속4안타로 2점을 추가,星武에 3-0으로 이겼다。

현재 商銀이 4승의 단독선두를 달리고있으며 韓電·韓國化粧品이 4승1패, 經理團、롯데가 3승1패로 그뒤를 쫓고있다。

◇제8일전적

한국화장품(4승1패)	010	000	020	3
성무(1승2패)	000	000	000	0

◇제7일전적

상업은행(4승)	002	200	020	6
한일은행(1승3패)	000	000	000	0

▲홈런=申慶植(8회·상은)

레너드、J미들級 포기

웰터級 통합 챔피언만 갖기로 WBA

【파나마시티23日로이터=聯合】프로복싱세계웰터급통합챔피언인 미국의 슈거·레이·레너드는 그가 함께 보유하고있던 WBA (세계권투협회)주니어미들급타이틀을 포기했다고 WBA대변인이 23일밝혔다.

대변인은 레너드가 이같은 결정을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즈로부터 22일밤보낸 전문을 통해 밝혀왔다고 말했다.

WBA는 한선수가 WBA의 두체급타이틀을 동시에보유할수없도록 규정하고있다.

WBA대변인은 레너드의 타이틀포기로 공석이된 WBA주니어미들급챔피언은 日本의 미하라·다다시와 미국의 로키·프라토의대결로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全南 靑壯年部우승

새마을 早起축구

【光州=聯合】全南은 23일 光州無等경기장에서 폐막된제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새마을조기축구대회 30대이상 청장년부 결승서 서울과 득점없이 비겼으나 승부차기서 7-6으로 신승, 영예의 첫 대통령기 주인이됐다.

또 3、4위전에서 濟州는 慶南에 3-1로 패했으나慶南의 서갑수선수가 77년에現代자동차소속의 실업선수로 된 사실이 밝혀져 게임이몰수되어 행운의 3위를 차지했다.

國際핸드볼聯 인정

韓國4審判에 자격

국제핸드볼연맹은 24일 黃水淵씨(문교부체육과연구관)등 4명이 국제심판 (B급)자격을 획득했다고 대한핸드볼연맹에 24일 통보해왔다.

◇국제심판신규명단

▲黃水淵▲孟正述(쿠웨이트코치) ▲洪盛杓 (충남대교수) ▲高光錫(명지여중교사)

金練子 예선탈락

마스터즈 배드민턴

【런던23日AP聯合=特約】한국의 金練子는 24일이곳로열·앨버트홀에서 벌어진 마스터즈·배드민턴대회 여자단식 예선에서 세계챔피언인 인도네시아의베라와티에게12-11, 11-6으로져 1패를기록했다.

4만4천달러 상금의 이대회에서 월드·게임 우승자인 中共의 장·아일·링(23)은 인도네시아의 이바나를 11-14、11-2로, 신예 첸·우이센은 덴마크의 레네·쾨펜을 12-11, 11-4로 이겼다.

東亞大學 2승선두

美式축구 釜大꺾어

【釜山=聯合】東亞大는 24일 釜山市 미식축구선수권대회 2일째 경기에서 釜山大를 18-0으로 꺾고 2승으로 단독선두에 나섰다.

기술과 체력이 뛰어난 東

모눈종이 위의 生 〈210〉

돌개바람불다⑪

趙善作 禹慶熙畵

방으로 돌아와서 나는 간단한 목욕부터 했다.

윤나미와 권여사는 피곤하다면서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기전에 윤나미가 「소설쓰시는 분들은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그렇게 엄격한 건가요? 춤도 함께 출수없을 만큼?」하고 의문을표시했고, 그 의문뒤에는 그녀가 그와 나 사이에 가로놓인 불편한 관계에대해 무엇인가 눈치채고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나는 변변하게 대꾸도하지 못했다. 나는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윤나미 모녀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녀들이 잠들자 나는 잠자리에서 살그머니 빠져 나왔다. 우선 나는 창문쪽으로가 커튼을 조금 젖히고 베란다에서 맞은편 방의 베란다까지 뛰어서 건널 수 있는가 살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너비였다. 곡예사라면, 그리고 밧줄 따위의 도구만 있다면 가능할는지도 몰랐다. 상대편 베란다의 천책에 밧줄을 걸고, 철봉에서 매달린 자리를 옮기 듯이 밧줄을 타고 건너면 상대편 베란다에 이를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어딘가에서 밧줄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설사 그렇게 해서 상대편 베란다에 이르렀다 해도 안에서 창문을 잠갔으면 들어갈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막연한 느낌이기는 복도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에게 편한 예고를 했다는 자책을 하면서도 나는 신에게 수단을 달라고 빌었다. 설사 신께서 수단을 주신다 해도 지금 그의 방에는 유감독이 함께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또 절망시켰다. 혹시 그가 내 예고를 받아들이고 방문을 잠그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쪽에 나는 기대를 걸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의 방문앞에 다가갔을때 헐레벌떡 방문 앞으로 나온 그가 「좀 있다가 와. 아직 유감독이 잠들지 않았잖아?」하고 귀띔하는 화해스런장면 따위도 나는 상상했고, 또는 그가 빈 다른 방에 들어있다가 비긋이 방문을 열며 멀리 내게 손짓하는 따위의 장면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질없는 공상일 뿐이었고, 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가 손잡이를 조금 비틀어 본 나는 내가 어떻게 그에게 철저히 거부당하고있나 똑똑히 깨달았다. 실린더는 조금도 비틀려지지 않은 것이다.

나는 거의 삼십분쯤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복도의 창밖으로 어둠에 잠긴 호텔의 눈덮인 정원을 내려다 보기도 하고, 그의 방문 앞에서 괜스런 인기척을 내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는 밖의 인기척에 아무런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다만 나는무력한 투광이 되어 초조하게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복도의 끝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남녀 두명의 투숙객을 거느리고 종업원이 나타났다. 종업원은 이층의 당번이어서 내게도낯익은 얼굴이었다. 그가 내 앞을 지나치며「왜 나와 계세요?」하고 물었을 때, 나는 얼핏 그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낸것이다. 그런 평범한생각을 겨우 해낸 나는 날 듯이 기쁜 느낌이었다. 드디어 신출귀몰의 아르센 루팡이라도 된 듯한 느낌으로, 나는 종업원이 투숙객 안내를 끝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다가오자 나는 높게 고동치는 가슴을 진정하며 부탁했다.

『이 방좀 열어주세요』

『안에 아무도안계셔요?』

『계신데 잠이 너무 깊이 들었나 봐요』

그는 아무런 의심도 갖지 않고 프런트로 가 예비 열쇠를 가지고 올라왔다.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 RODENSTOCK

●콘텍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월~토 9:30AM~6:00PM ●월~토 11AM 7PM

一品香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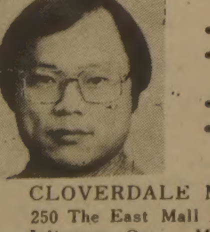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CLOVERDALE MALL
250 The East Mall, Suit 157
Islington, Ont. M9B 3Y8
(B)233-6236, (R)745-8236

NIPPON VIDEO CENTRE
일본비데오센터

많은 한국 테프가 새로 들어왔읍니다
주6일 OPEN

1993 DANFORTH AVE. TOR.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우드바인 서쪽 1 block)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朴喜範씨(忠南大 前총장) 夫婦 동반自殺

持病비관… 醫師부인과 함께

◇숨진朴喜範교수

忠南大총장과 문교부차관을 지낸 朴喜範씨(59)가 24일 하오 자택에서 숨진채로 발견됐으며 내과의사인 부인 蔡수희여사(52)도 중태에 빠졌다가 이날하오3시께숨졌다.

이날 상오8시께 大邱市東區晩村1洞620 자택에서 朴씨가 다량의주사를 맞은채숨져있었고 부인蔡여사도 중태에 빠져있는것을 조카딸인 윤관영씨(32)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蔡여사는 가족들이 경북대의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 다시 집으로 옮겼는데 하오3시께 숨졌다.

朴씨는 지난1일 지병인간암으로 경북대부속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병원측으로부터 회복될 가망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19일 퇴원, 그동안 자택에서 의사인 부인 蔡씨의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과 경찰은 부인 蔡씨가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朴씨를 안락사시킨뒤 자신도 뒤따라 자살을 기도한 것이 아닌가 보고 수사를 펴는 한편 朴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蔡씨가 뒤따라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맞았던 영양제 주사의 수액을 채취, 경북대보건연구소에 감정과 박씨부부의 시체부검을 의뢰했다.

검찰이 동반자살했을 것으로 보는것은 朴씨가 지난21일 이종동생 문종수씨(50·김천시 평화1동320)를 자기집으로 불러 선산이 있는 경북 금릉군 어모면 도암동에 있는 박씨의 전처무덤옆에 묘소2개를 빨리 잡아 달라고 부탁한 점등을 들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경북대부속병원에서 퇴원한후 부인과 묘소문제에대해 자주논의했고 이종동생 문씨에게 2~3일안에 묘소에 석곽을 넣게 묘봉까지 만들라고 독촉했으며 부인 蔡씨도 5년전부터 앓아온 심장병이 최근 재발됐다는 사실들을 밝혀냈다.

朴씨집에는 朴씨부부를 비롯 가정부 윤씨와 며칠전 다니러온 장모 신정숙씨(80)등이 살고 있었으며 3남2녀의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이날하오에는 친척들만 모여 집을 지키고 있었다.

경제학 박사인 朴씨는 서울대, 고대교수, 문교부차관, 충남대총장등을 역임하고 지난79년8월부터 계명대학에서 경제학과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지난3월1일부터 이대학의 산업경영연구소 소장직을 맡아 왔었다.

한편 부인蔡씨는 내과의사로 조폐공사 慶山조폐창 의무실장으로 일했고 지난73년 朴씨와 재혼했다.

조카 박승봉씨(42·大邱市 내당동 삼익맨션5동207호)에 따르면 朴씨부부는평소 금술이좋아 죽으면같이죽고 살면 같이산다는 말을 자주해왔으며 2~3일부터 자녀들에게 대한 부탁도 다해두고 미국에 유학중인 장남동률씨(32)에게는 「금릉군어모面도암洞에있는 농장을 잘 관리해 달라」는 쪽지도 남겼다는 것이다.

朴씨의 장모 신씨는 朴씨로부터 숨지기 하루전인 지난23일 수의를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의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때 딸蔡씨도 『어머니 내옷도 준비해주세요』라고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大邱=聯】

10代 6명 집단家出

高校재수생서 5살도끼어 20만원갖고나가 3일째

한동네 10대청소년 6명이 현금 20만원을갖고집단가출, 3일째 돌아오지않고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가출한 어린이들은 서울中區會賢洞1街83 鄭善陽씨(42·상업)의 2남 운경군(11·南山국교5년) 등 6명으로 5살어린이에서부터 17살청소년까지 모두 10대다.

이들은 지난22일 하오7시께 운경군집에서 현금20만원을 갖고 『부산으로 간다』고 나간뒤 24일현재 돌아오지않고있다.

운경군의 어머니 金順淑씨(43)에 의하면 하오6시께 딸 恩美양(14·숭의여중1년)이 찾아와 金씨의조카 광현군과함께 나간 운경이가 집에서 20만원을 갖고나갔다며 가게에들르지않았느냐고 물었다는것.

相賢군의 어머니 申英姬씨(32)에 의하면 이날하오6시30분까지 집에서 놀다가 이웃에사는 이은님씨(48·여)의 아들 우한신군이 찾아와 함께나간뒤 돌아오지 않았다는것.

함께 가출한 6명중 가장 나이가많은 정원석군은 지난해 고교입시에 낙방, 재수를 하고있었는데 평소 함께가출한 동네어린이들과 친하게 지냈다는것.

가출한 6명은 다음과 같다.

▲鄭善陽씨(42·상업)의 2남 운경군(11·남산국교5년) ▲정원석군(17·고교재수생) ▲윤상덕군(14·중앙중1년) ▲우한신군(11·남산국교4년) ▲이상현군(9·〃2년) ▲김광현군(5).

구독신청 배달사고

敎區설정 平信徒힘 컸다

天主敎 1백50주년기념 심포지엄 오늘 本社강당

천주교 조선교구설정 1백50주년기념 교구사 심포지엄이 25일하오4시부터 한국일보12층강당에서 열린다.

이자리에서는 李元淳교수(서울大) 金玉姬수녀(釜山女大교수) 崔奭祐신부(한국교회사연구소장) 趙珖교수(東國大)가 주제발표를 하고 金聖泰(가톨릭大) 朴成壽(崇義女專) 宋吉燮(監神大) 崔鍾庫교수(서울大)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이날 강연에서 李元淳교수는 「조선교구설정의 역사적 계기」라는 연제를 통해 『교구설정의 최후결정은 교황그레고리오16세가 내린것이나 그러한 영단이 이뤄질수 있었던 계기는 조선교회의진취적 전통에 터전한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 선도된것』이라는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교회가 성직자와 미사의식없이 창설되었으면서도 일찍부터 교회首位權者로서의 교황을 의식하고 그 뜻에 특별한 배려를 기대했던 점도 유의할 사실이라고 지적한 李교수는 『이같은 이해는 서학접촉의 초기저서인 李晬光의 芝峰類說, 愼後聃의 西學辨, 李瀷의 星湖僿說, 安鼎福의 天學考등에서 엿볼수있다』고 설명한다.

敎皇 의식하고 특별한配慮 기대

殉敎의 고난속 꿋꿋이 布敎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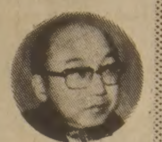
「조선교구의 활동」을 강연하는 金玉姬 수녀는 『서양선교사들은 순교로써 포교해야하는 고난을 치르면서도 꿋꿋이 활동을 계속했으며 이들 선교사들은 성직자 못지않게 평신도들도 항상 생명을 내건 극한 상황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켰다』고 말한다.

金수녀는 가톨릭이 우리사회에 기여한것들로 한글발달에 공헌한업적, 문맹자교육,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평등을 제시한 사회봉사사업등이 특히 괄목할만 하다고 지적한다.

崔奭祐신부는 「조선교구설정의 교회사적의미」를 통해 『1831년의 조선교구 설정은 대내적으로는 천주교의완전한 受容, 대외적으로는 사도적 가톨릭교회와의 일치를 의미했다고 정의한다.

교구의 설정은 한국을 널리 세계에알린 계기가되었으며, 특히 北京교구와 포르투갈 보호권으로부터 한국이독립됨으로써 한국이 중국의속국이 아니며 더구나 포르투갈 식민지 세력권이있는나라도 아님을 서구세계에 분명히 인식시키는데 기여했다고 崔신부는 강조한다.

「조선교구설정의 민족사적의미」를 강연하는 趙珖교수는 『천주교는 한국근대사회의 형성을 촉진시켰고 근대문화발전에 기여하는등 한국사발전에 몇가지부문에서 긍정적기여를 했다』고 말한다.



◇李元淳교수

◇崔奭祐신부

◇金玉姬수녀

殉敎者의 달에…

삶과 죽음의 참뜻 다시 일깨울 때

말씀

金蒙恩 <양화진聖堂神父>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9월을 殉敎者의달(福者聖月)이라 부르고 있다. 그것은이달에 특별히 殉敎精神을 되새기며, 모든 신자들이 殉敎者的인 믿음을갖도록 하자는 뜻에서이다.

한국천주교회가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없는 특이한방법으로 천주교를 祖國에 도입시킨지 1984年이면 꼭 2백주년이 된다. (모든 나라에 敎會가 전파된 것은 선교사의 손에 의해서 이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동포의 손에의해서 도입되고 전파되었다. 李承薰이 北京에서 1784年에 洗禮入敎한후에 천주교를 한국땅에들여온 것이 그것이다)

그 후로부터 거의 1백년동안 계속되는 박해로인하여 무수한 殉敎者들을 속출시켰는데, 9월달에 많은 殉敎者들을 냈기 때문에 9월을 福者聖月이라고 하는 것이다.

(福者란 순교자중에서 가장 열렬하게 하느님을 전파하고 장렬하게 순교한 사람들을, 敎會가 公認하여 공경하도록 한 사람들을 뜻한다) 그많은 박해중에서도 소위 4大敎難이라해서 辛酉(1801)박해, 己亥(1839)박해, 丙午(1846)박해, 그리고 가장 혹독했던 丙寅(1866)박해가 있다. 저 유명한 金大建신부도 丙寅박해때에 순교했다. 丙寅敎難은 10년간 계속되었으며 1만명이상의 순교자를 냈다.

많은사람들은 殉敎者의 그러한 행위,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신앙을 지켜간 까닭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신앙이무엇인지 알지못하는 사람들이 가질수 있는 당연한 의문이다.

그런데 이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도없는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남녀의 풋사랑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돈몇푼때문에 목숨을거는 사람들도있고, 또 얼마의 값어치도 되지않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도 죽는사람이 있다.

그리고 좀더 고상한 죽음으로는 貞節을지키기위해 죽는 사람도있고 충성심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다. 死六臣들은 그처참한 형벌을 받고도 끝내 首陽大君에 굴하지 않았기때문에 마침내 생명까지도 빼앗겼던것이다.

그러나 순교자들은 그보다도 좀더 차원높은 경지에서 그들의 생명을 내놓았던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가 인류의 최고이상이 된것은 그분이 「眞理를위해 목숨을 바쳤기」때문이다. 그리고도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진리를위해 목숨을 바칠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순교자들은 現世的인 명예나 권력, 부귀나 영화따위는 안중에도없고, 오직 진리이신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며, 그진리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것들과 對敵해 싸우다가 마침내 생명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나(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받을때,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마태복음5:11~12)

信仰人의 價値觀은 이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은곧 하느님의 힘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보여주시지않았읍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하느님을 알 수 없는 것이 하느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I 고린토1:18~20)

신앙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세상이 가지는 가치관을 버려야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가치관을 가질때만 참된 행복과 번영이 있다. 세속적인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인류에게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오늘날 문화가 발달된 이 세상에서 인류는 행복 대신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원자탄은 언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험의 極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것은 이세상사람들이 철저하게 利己主義的인데 반하여, 철저하게 利他主義로 산다는것을 뜻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世俗化되어 그와같이 그리스도께서 사신것처럼 살지못하는데서 사회는 자꾸만 不義해가고 부패해가고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殉敎者的인 信仰이 아쉬울 때가 없는것이다. 不義와 타협하지않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대로 굳세게살아가는것이 오늘날의 殉敎라 생각한다.

世俗的으로 보아서는 손해가 된다할지라도, 혼연히 不義와 결별하고 淸貧의 길을 걷는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손해가 되고 위험이 따를지라도 不義와 對敵해서 싸울 수있는 용기, 이러한 것들이 모두 殉敎의 길로 통한다. 그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볼때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信仰的인 가치관으로 볼때, 숭고하고도 보람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信仰的 차원의 가치관을.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宗敎 소식

明洞서 대규모바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교구설정 150주년기념 신학원건립기금 모금바자를 26일상오10시부터 27일하오5시까지 明洞성당경내에서 갖는다. 이번바자는 교구내 11개 본당및 수도회 신심단체등에서 신자들이 출품하는 기증품만으로 개최되며 타교구와 가톨릭농민회가 출품하는 특산물시장도 마련된다.

金추기경은 은장도를 비롯 서류함 성합 자개담배케이스 칠보함아리등을, 景甲龍주교는 은도금세트 자개꽃병 돌꽃병 오지주전자 칠보도기등을 기증하는등 많은 성직자들의 기증품이 답지했다.

월요聖書 공개강좌

YMCA 종로지회는 28일부터 11월말까지 매주 월요일 하오7~8시에 「Y성서에의 초대」 공개강좌를 연다. 「노예냐 자유냐」라는 주제로 강사는 李信교수(그리스도 신학대)。

檀君정신 宣揚강연

단군정신선양회(회장 韓燦)는 4313돌 개천절기념학술강연회를 26일하오 2시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연사는 李恒寧(단군사상과 동학사상), 徐京保(단군사상과 불교), 文相熙박사(단군신화와 기독교)등.

로고스合唱團 연주

천주교 조선교구설정 150주년기념 「로고스합창단」 정기연주회가 26일 하오3시, 7시 국립극장대극장에서 열린다. 지휘 朴在光, 고려교향악단 협연. 연주회 곡목은 「조선교구설정 1백50주년가」「무궁무진세에 (복자)」「사제찬가」등.

나의祈禱

慎達子<시인>

어느여인의 祈禱모습에서 새로운발견… 번찬희열이

새벽산책에 심취해 있다. 서서히 어둠이 벗겨지는 인적드문 싱그러운 신사동 산길을 오르며 내 지금껏 무익한 안일의미련으로 잠자리를 떨치지못한 게으름이 바보스럽기까지 하였다.

이같은 생활의 새로운발견의기쁨은 내종교적인 체험에서 더욱 적중했었다. 지난날 나는 종교적인것이 참으로 성가신것이라고 생각했고 종교적인강조가 비종교인을 더 종교에서 멀리하는 비대한 원인으로생각했으며 사랑의 원칙보다는 그적용이 비위에 거슬렸었다.

무엇보다 나는 인간적인것 그 이상의것을 원치 않았었다. 나는 기구하지 않았으므로 무릎을꿇필요가 없었고 신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신은 전지전능한가 물론 아니었다.

불우한 인생을 불우하게 삶으로써 천국을 보장받는 것으로 믿었던 내 나름의 고리도 큰 잘못이었다.

가족하나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밤을 지나기가 어렵단다는 의사의 통고를받은 밤이었다.

중환자대기실의 창으로 영안실이 보이는 그 섬뜩한 공포분위기에서 묵주를 들고 평화롭게 기도하는 한 초라한 여인을 나는 보았다. 놉살이로 손은 거칠었고 행색은 누추하기 이를데 없었으나 공사판에서 사고를 당한 남편의 회복을 비는 기도의 자세가 그때 나에게 세상에 없는 대단한 권력자로 우러러 보였던 것은 실로 경이로운 일이었다.

나는 다급했으므로 순간적으로 그녀앞에 무릎을꿇었고 그녀에게 무엇인가구걸하고 싶은 갈한 충동을 느꼈었다. 확실한 존재에 대한 신뢰의 기쁨, 그어떤 위기나 절망에서도 잡아주는 따뜻한 손, 불안도 외로움도 넉넉하게 헤아려주는 「님」의사랑이 무력하게 발돋우르고있는 나에게 아주 짧은시간에 하나의 손잡이로 다가오는듯 했었다.

이것은 인간의 교활함이기보다는 새로운 발견에대한 기쁨, 지난날의 게으름이 억울하기까지한 신선한 새벽산책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상통한것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人間을위해 勞動있다 勞組는 不可缺한존재"

波紙, 敎皇回勅실어

『인간을위해 노동이 있는 것인지 노동을 위해 인간이 있는것은아니다』。최근 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발표한 「노동에관한回勅」의 한구절이다.

너무도 당연한 내용의 이말은 때가 때인만큼 폴란드의 울타리를 넘어 국제정치적인 관심마저 모으고 있다.

폴란드공산당이『勞組가 국가를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난하고있는판에 이回勅은 노동조합이 「사회정의를 쟁취하는데 불가결한존재」라고 옹호하고 있는것이다.

교황은 원래 이회칙을 지난5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5월의 저격사건으로 이제야 발표하게된것이다.

이 회칙은 또 극단적인 공산주의와함께 자본주의도 다같이 비난하고있다.

교황은 또 「노동자의 단결」을 촉구함으로써 폴란드의 노조활동에 지원을 보내는듯하지만 노조의 정치개입도 금하고있다. 그래선지 폴란드의 정부기관지들은 이회칙내용을 대서특필하고있다. 【뉴스위크誌】

제8회 한국音樂콩쿠르 시상

入賞者7명에 영예의상패·賞金

제8회 한국음악콩쿠르 입상자 시상식이 24일 하오4시 한국일보社 회의실에서 열렸다.

피아노부의 羅正惠(1등·서울예고1) 崔美愛(2등·선화예고2) 金聖姬양(3등·서울예고2)과 바이얼린部의 任素暎(1등·예원중3) 李京宣양(2등·서울예고1) 南徹祜(3등·예원중3) 李定一군(3등·서울예고1)등 입상자 7명은 이날 본사 張寅泰총무이사로부터 영예의 상패와 상금을 받았다.

◇한국음악콩쿠르 영예의 입상자들 ㊧로부터 金聖姬, 崔美愛, 羅正惠, 任素暎, 李京宣, 李定一

敎派를 초월한 福音전파

가정·지역·직장등 단단한 조직

1년半만에 15개「햇불」로

『새 생명, 새 심지에 義와 眞理와 사랑의 불을켠다』는「햇불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24일하오7시 종교교회에서 열린 회개금식 기도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는 요원의 불길처럼 햇불운동 사회곳곳에 파고드는 햇불운동의 한側面인 표현이다.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햇불이 되어 소외되고 그늘진 곳과 민족생존의 후미진 기슭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합니다』『우리는 불만과 실의에 빠져 스스로를 포기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자 헌신하는 햇불이 되렵니다』! 이런 다짐을 재확인하고 전파해가는 종교교회모임은 25일과 26일 저녁시간에도 계속된다.

이 모임의 주최자는 한국기독교선교원(이사장 崔淳永)산하 한국햇불선교회(총회장 李馨子). 특정한 교파에 소속되거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중심·말씀중심·선교중심」으로 눈덩이처럼 뭉쳐가고있는 신자들의 모임이다.

당초 梨大동문들을 중심으로 모인 「햇불회」가있었다. 이 햇불회가 바로 햇불선교회는 아니지만, 햇불회의 많은 멤버들이 지난해 봄에 발족한 햇불선교회의 핵심이되었다. 햇불선교회는 이를테면 초교파적인 성령운동의모임이어서, 문호가 개방돼있는것이 특징이다.

발족 1년반이 지난 햇불선교회는 현재 15개의「햇불」을 거느리면서 계속 늘려가고 있다. 햇불의 이념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지역, 직종, 기능, 능력에 따라 묶는 이들「햇불」조직은 생각보다 熱度가 높고 단단하다.

『햇불이 타오른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손길/뜨거운 사랑의 빛으로/하늘높이 타오른다/뜨다아, 햇불이 타오른다/뜨겁고 영원토록 새 생명 새역사를 창조하자/햇불을 높이 들어라』

「햇불의 노래」를 합창하는 회원들의 표정은 진지하고, 무엇보다도 열렬하다. 『밝고, 환하게, 그러나 소리없이』 타오르겠다는 성령의 햇불, 새로운 차원에 들어선 복음전파의 모습을 이들에게서 볼수있다. 【李忠雨기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 제1회 한국햇불성회 포스터.

「햇불선교회」 제1회聖會 개최

강학수종합보험

- 한국에서 10년간 보험근무 (American International Underrter)
- 뉴욕보험대학수료
- 카나다에서 15년간 생명보험취급
- 금년도 종합보험으로 확장

◎상점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R. R. S. O
◎세금공제

☎ : 868-0922(B) 622-5147(R)